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9월 4일)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공부하다 죽겠다” 첫 ‘노천안거’ 결사

자승 스님 등 9명 스님들 천막 동안거 정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이번 겨울 ‘노천 천막’ 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극한의 수행으로 출가수행자의 결연한 정진 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단 지도자급 스님들이 직접 노천에서 안거 정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노천 천막 안거에는 자승 스님과 수좌 정묵 · 무연(동광) · 성곡 · 중앙종회의원 진각 · 호산 · 심우 · 도림 · 양평 상원사 前 주지 재현 스님이 참여한다. 스님들은 오는 11월 11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 내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부지에 천막을 치고 수행정진한다.

천막 수행처 이름은 ‘상월선원(霜月禪院)’이라 정했다. ‘서리와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원 소임도 최근 정리됐다. 선덕은 수좌 정묵 스님, 선원장은 무연 스님, 입승은 진각 스님, 지객은 호산 스님이 맡았으며, 외호 대중으로는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수행 정진의 결연한 의지는 스님들이 정한 청규에서 엿볼 수 있다.

천막 법당을 설치해 9명이 생활하고 매일 기본 14시간 좌선과 행선을 하기로 했다. 안거 해제까지 삭발과 목욕은 금지며, 옷은 1벌만 허용된다.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사시 때 외부서 제공받기로 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접촉은 일체 금지며, 천막 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원의 청규가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청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해제 전 법당을 떠날 경우 조계종 승적에서 제적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천 천막 동안거 정진’은 지난 2월 백담사에서 무문관 수행을 마친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고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취지에 공감한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9명으로 정리됐다.

지객 소임을 맡은 호산 스님은 “참여의사를 보내온 스님들이 많았다. 이판과 사판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직 중앙종회의원과 제방 선원 수좌 스님들이 고루 방부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천막 선원의 장소는 종로 원각사지가 거론됐지만, 문화재여서 천막 설치가 어렵고 출입이 제한돼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는 조계종이 지난 2014년 신도시 포교를 위해 매입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포교당 건립불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산 스님은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에서 이뤄지는 스님들의 용맹정진

위례신도시 포교당 부지서
3개월 천막 기거하며 수행
삭발 · 목욕금지, 옷1벌 허용
‘떠나면 제적’ 의지 결연해
“평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
불교인식 개선에 도움되길”

으로 신도시 포교를 위한 종단의 불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최고의 도량을 건립하길 기원하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천 안거 결사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안거기간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입승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은 “ ‘공부하다가 이곳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진에 임하겠다”면서 “혹독한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던져 극한의 수행을 해보려고 한다. 이 같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호산 스님 역시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행정 소임을 맡으면서 선원의 정진이 그리웠다”고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이어 “스님들의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교교리 ‘TOP’은 바로 ‘나’란다 불교 꿈나무들을 위한 화합의 장인 제11회 나란다축제가 9월 21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을 비롯한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전통문화체험을 비롯해 외국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문제 정답인 ‘탑’을 쓰고 환호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A5면〉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임 원로의원 선출 회의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 10월 10일… 자광 스님 선출 안건 다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자광 스님의 선출 여부를 다룰 원로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새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원로의원은 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현재 원로회의는 신흥사 · 화엄사 · 관음사 · 선운사 원로의원이 공석인 상태다. 또한 동화사가 성우 스님과 지성 스님으로 2명의 원로의원이 활동 중이며, 자광 스님이 원로의원으로 선출되면 정련 스님과 함께 직할교구도 2명의 원로를 확보하게 된다. 윤호섭 기자

불교진흥원 신임 이사장 이한구 이사 추대

제179차 이사회서…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신임이사장에 이한구 진흥원 · 불교방송 이사〈사진〉가 추대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9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이사장실에서 제179차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이사장에 이한구 진흥원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이한구 신임이사장 추대에 대해 “기후 재앙과 환경파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파국에 직면한 인류문명에 대해 불교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추대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68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철학회장, 원효학술상운영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원효학술상 심사위원장, 대원불교문화대 학장,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의대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으로 있다.

이 이사장은 은해사 기기암에서 휴암스님과 오랫동안 참선 수행과 불교경전 공부를 해왔으며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이 많아 고엔카지 10데이 코스를 참가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가 인류문명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대한불교진흥원 차원의 실천 방안을 추대와 함께 밝혔다.

이 이사장이 밝힌 실천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계 전체가 하나라는 생명사상에 기초하여, 현재의 과도한 육식습관을 절제하고 생명체의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물질문명의 폐해로 황폐화되고 쇠락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기 위해 구도의 현대적 수행기풍을 새롭게 모색한다 △불교 정신 계승을 위해 인재불사에 적극 나선다 등이다.

이 이사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불교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깨달음과 실천에 이르게 하겠다”며 “종교적 사명과 불교진흥이라는 재단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전했다.

이한구 신임이사장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대표단 訪日, 빈손외교 '허탈'

일본불교계, 韓 공동성명 제안 검토 중 입장 바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일 양국 갈등상황 타개를 위해 한국과 일본불교계가 추진하던 공동성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불교계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불교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탄력 받던 공동성명은 일본불교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한 회의 테이블만 마련돼 한국대표단의 방일이 무리한 빈손외교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대표단은 지난 9월 6~8일 일본을 방문,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을 비롯한 일본불교 주요 인사를 만나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대표단에는 종단협 부회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 상임이사 덕조 스님, 한일불교협 사무총장 향운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보도에 일본 측 반발

한국대표단은 방일을 마친 뒤 "한국과 일본불교계가 지난 40년간 이어온 우호 교류를 기반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9월 20일까지 일본 측과 공동성명을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불교계는 일본불교계가 2009년 여주 신륵사에 건립한 '과거사참회비'에 담긴 문구를 기반으로 한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공동성명 추진에 대한 국내 종합언론의 일본어판 보도를 접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한국불교가 일본불교를 이용해 공동성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일본불교계는 "해당 보도에 명시된 9월 20일 공동성명 발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발하며 불만을 표했다.

한국불교계는 전후사정을 일본 측에 설명했으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동성명 무산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계는 단독성명 발표도 고민했으나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성명 발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사진 가운데)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한국불교대표단. 당시 일본불교계는 한국대표단이 제안한 공동성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양국불교 공동성명 끝내 무산
일본 제안 '유해봉환'은 추진
10월 15일 서울에서 첫 회의
"남 좋은 일 하게 된 일본방문"

반면 전일본불교회가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한국에 제안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인 '구(舊)민간 징용자 유골봉환'은 10월 15일 서울서 첫 실무회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추진한 공동성명은 무산된 채 일본서 제안한 사업만 다루게 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은 그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일본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양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불교계가 갑자기 한국불교계에 유해봉환을 제안해오자 민간을 통해 유해를 떠넘기려 한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에 대한 배상판결 등 국제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해봉환 논의 신중해야"

이와 함께 유해봉환 활동을 펼쳐온 민간단체와 강제징용 희생자 유족회도 한일불교계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불교계 대화는 의미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유족의 입장 반영, 정부 간의 조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추진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은 "유해봉환은 희생자와 유족 중심으로 풀려야 한다. 종교계 활동은 의미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사과 없이 유해를 가져오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 민간단체와 협의해 민감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중앙회장은 "유해문제는 유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일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나서서 애도하고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힘이 없다고 민간단체와 종교계 중심으로만 문제를 풀어가선 안 된다. 정부예산 받아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정작 유족과는 한마디 상의 없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회는 8월 27일 "공동성명을 일본에 먼저 제안한 뒤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일본을 방문하고, 유해봉환 논의는 이번에 제외한다"고 회의결과를 정리했다. 그럼에도 종단협 회장단 일부가 상임이사회 결과를 뒤집고, 성과 도출을 위해 대표단을 급파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득은 얻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한 한 스님은 "상임이사회 결과를 회장단이 번복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건 무산되고, 상대방이 제안한 것만 추진하게 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엄수된 활안 대종사 다비식에는 송광사 문도스님들과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30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조계종 명예원로 활안 스님 다비식

순천 송광사 연화대에서 9월 21일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신광당(神光堂) 활안대종사(活眼大宗師) 다비식이 지난 9월 21일 순천 송광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50여 년간 주석한 천자암에서 연화대로 이운한 활안 스님 법구는 사부대중의 장엄염불 속에 거화와 함께 피안의 세계로 떠났다.

다비식에는 송광사 문도인 현고 스님, 영조 스님, 현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지 진화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산 호랑이'로 불린 활안 스님은 지난 9월 18일 세수 94세 법납 67세로 입적했다.

활안스님 49재는 9월 24일 초재를 시작으로 녹야원(이천), 지장대사(여수), 고불암(합천), 서원사(창원), 보현사(경기 광주)에 이어 11월 5일 천자암에서 막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달력 의혹, 사실관계 확인 없는 흠집내기"

조계종 도반HC, VIP달력사업 관련 기자회견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가 9월 17일 조계종출판사 前대표인 자승 스님과 前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국고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조계종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사장 주혜)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은 허위이자 의도적인 자료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2년 VIP용 달력 2000부 제작을 1억 원에 계약했지만, 문화사업단에는 500부만 납품하고 1500부는 자승 스님이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은 "2012년 5월경 조계종출판사는 당시 종단 현안이었던 승려노후복지기금에 기탁할 목적으로 전문달력업체와 판매용 3000부 제작을 계약, 조계종출판사 회계와는 별개로 VIP달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2000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해 계약한 별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당시 제작된 달력은

국고보조 달력, 목적대로 사용
판매 달력은 출판사 별개 사업
관련자료 모두 검찰 제출 예정

시민단체는 조계종 자료 요청
국고횡령 근거는 공개 안 해

총 5000부로, 이 중 3000부는 공공목적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용, 2000부는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사용됐다는 게 도반HC 설명이다. 도반HC에 따르면 2000부 중 절반은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템플스테이 관련 주요 관계자 등에게 DM발송하고, 나머지를 문화사업단에 납품했다. 또한 문화사업단에 납품된 1000부 역시 444부는 관계자들에게 DM발송 후 나머지는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 등으로 사용됐다.

주혜 스님은 "고발행위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두 건의 달력제작을 하나로 엮어 자료를 가공하거나 조작, 국고보조금 횡령이라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반HC는 시민단체 측 보도자료에 서로 다른 2개의 달력이 자료사진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자료사진 중 하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면에 병기돼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대한불교조계종'만 적혀 있다. 즉 판매용 달력과 홍보용 달력을 같은 것으로 혼용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주혜 스님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판매해 국고를 편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래 목적과 같은 홍보용으로 적법하게 배포됐다"면서 "일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온 전례를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는 의혹제기의 배경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반HC와 문화사업단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입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날조된 허위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용 달력 견적서와 계약서, 제작비 내역 등의 자료 공개를 조계종에 요청했다. 하지만 자승 스님과 전 임사장이 국고를 횡령했다는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이들 단체는 "달력 500부만 납품되고, 1500부는 배포가 아닌 판매라고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검찰이 밝힐 것"이라며 조계종의 답변을 보고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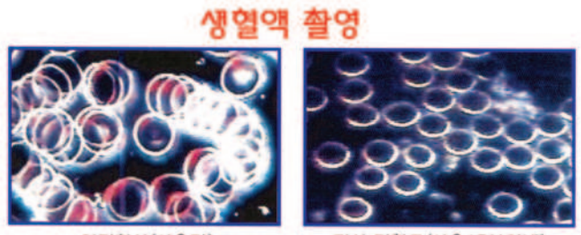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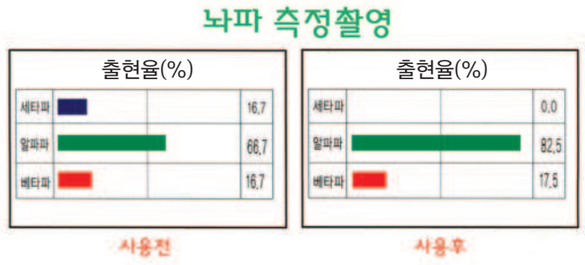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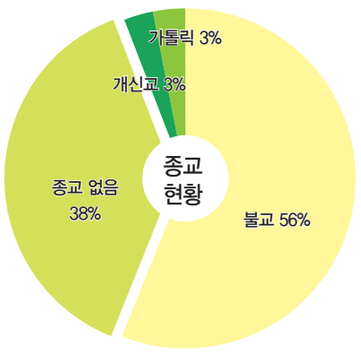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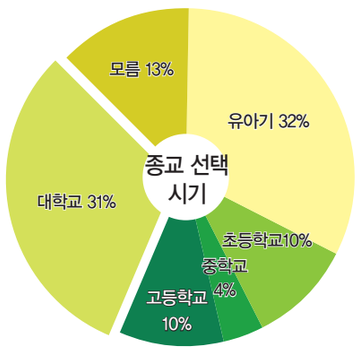
대학생 불자 "新 신행 프로그램 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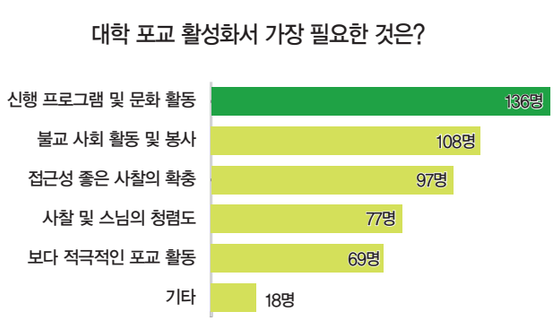
청년대학생전법단 '2019 청년불자 종교의식' 발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동아리 회원 505명 설문조사
회원 44% 무종교 · 타종교인
불교 · 스님 인식 대부분 '긍정'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44%가 무종교인이거나 이웃종교인이며 이들중 상당수가 불교개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교교리 및 철학공부에 회원 63%가 긍정의사를 밝혔으며,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신행프로그램 개발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9청년불자들의 종교의식과 신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불련을 중심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5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종교인 중 63% 불교 입문 의사

이번 조사 대상인 505명 중 38%인 193명이 무종교인이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신자도 각각 3%인 13명씩 조사됐다. 종교가 있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선택시기 조사에서는 유아기가 32%인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시기도 96명으로 31%에 달했다.

특히 종교가 있는 불교동아리 회원 중 종교별 종교선택시기에 대한 세부조사에서 불자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많은 33%가 대학교 시절을 꼽았다. 불자인 불교동아리 회원 과반 이상(55%)이 사춘기 이후 종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불교 개종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무종교인 193명 중 63%인 121명이 불교 개종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인 동아리 회원 총 26명 중 8명도 개종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법회 요구↑, 교리철학 교육 선호

불교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정기법회와 스님과의 대화가 각각 249명, 116명의 응답자로 1,2위로 꼽혔다. 이밖에 템플스테이(106명), 연등축제(100명)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불교교리 및 철학을 교육받지 않은 이가 43%인 217명에 달했다. 불자가 아닌 회원들이 많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교 교리 및 철학을 배우고 싶은 의향은 긍정의향이 80%인 401명에 달했다. 불교교리 및 철학을 배우고 싶으나 주저하는 이유로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으며(182명),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100명) 내용이 어려워서(87명)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불교동아리 회원인 만큼 불교 이지미는 대체로 긍정적이 었다. 불교 이미지가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매우그렇다(164명)와 그렇다(268명) 등 긍정의사가 86%에 달했으며, 스님들의 이미지 또한 72%가, 사찰 및 불교단체 이미지는 70%가 긍정의사를 밝혔다.

불교로 마음안정, 신행프로그램 필요

이들 54.3%인 274명이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은 마음의 안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되어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대학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행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의 개발이었다.

전체 회원 중 26.9%인 136명이 새로운 신행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밖에 불교사회활동과 봉사가 21.4%인 108명, 접근성 좋은 사찰 확충은 19.2%인 97명이 응답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를 접하는 계기서 가족 또는 친지의 영향이 183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스스로의 관심이 80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불교동아리 주 가입경로 또한 스스로 참여한 부분이 288명으로 57%에 달했다. 스스로 판단하여 개인수행 등 필요에 따라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는 만큼 대학포교 활성화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9명으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학 불교동아리가 청년포교에 있어서 중요한 창구역할을 함을 재입증한 것"이라며 "동아리 회원들의 열의에 맞춰 새로운 신행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활동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불교계 축제 잇단 취소

삼랑성 · 남한산성 의승군 축제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점차 확산되면서 불교계가 주관하는 문화축제가 잇달아 취소됐다.

먼저 오는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9월 25일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강화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올해 '공존'을 주제로 역사강좌와 가을음악회, 역대조사 다례재, 호국영령 영산대재, 남사당 놀이, 만해 한용운 마당극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9월 24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화에서 발병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했다.

경기 광주 장경사도 10월 12일 장경사와 남한산성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제8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취소했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강남 한복판 '명상물결' 흐른다

한국명상총협회, 10월 5일 강남페스티벌 대미 장식

서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을 대표하는 길이자 젊은이들의 문화가 숨쉬는 이곳에서 명상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하는 명상축제가 열린다.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최하는 2019강남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가로수길 천연잔디에서 '강남한류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통불교 수행법인 참선을 비롯해 요가명상, 피트니스명상, 선무도명상 등 다양한 명상 시연과 체험이 2000여 대중을 상대로 펼쳐진다.

이번 명상 페스티벌에서는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의 명상법에 대한 강의와 실참을 시작으로, 인도 모디총리의 요가스승인 나겐드라 비베카 요가의 한국대표인 비베카 킴의 요가명상, 김수미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장의 바디케어 명상, 채의걸 선무도 강남 명상요가센터 대표의 선무도 시범이 진행된다.

한국명상총협회는 명상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누구나 명상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명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여간다는 게 협회 측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인재양성 25년… 50회 맞은 화엄장학회

603명에게 총 3억천만원 지원

고양 금륜사(주지 본각) 화엄장학회가 인재양성 발원 25년을 맞아 9월 22일 50번째 장학금을 비구니와 학인, 일반학생들에게 수여했다. 1995년 인재양성을 발원하며 구성된 화엄장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학기에 맞춰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50회 장학금은 7명의 비구니 · 학인 스님과 대학원생, 초 · 중 · 고교생 8명에게 총 1110만원이 지급됐다. 누적장학생 603명, 누적장학금만 3억7925만원이다.

화엄장학회는 1995년 3월 당시 중앙승가대 보타사 주지와 비구니수행관장을 맡고 있던 본각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어려서부터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매진해온 본각 스님은 학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다 장학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학인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취지에 도반과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졌다.

초기 비구니 학인을 위해 시작된 화엄장학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넓혔으며, 본각 스님과 인연을 맺은 권오향 보살이 희사한 1억 원으로 '오향장학금'을 마련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각 스님은 "많은 분들의 십시일반으로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장학회의 곳간이 비었던 적은 없었다"며 "모든 것은 불자님들의 공덕"이라고 장학회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태국 · 부탄 인류무형유산, 한국서 선뵌다

국립무형유산원, 10월 4~5일 공연 · 컨퍼런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태국과 부탄의 전통 가면연희가 한국에서 선보인다.

전주 소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태국 · 부탄의 전통 가면연희 종목을 초청해 공연과 컨퍼런스 등을 선보이는 '신(神)들의 춤, 아시아의 가면연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에 초청되는 태국의 '콘(Khon)'과 부탄의 '다메체(Drametse) 가면북춤'은 모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목이다. 이들 모두 태국과 부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두 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보호 ·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태국 · 부탄 문화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태국문화부국립예술단과 부탄왕립공연예술원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10월 4일 오후 7시에는 태국의 '콘'이 관람객들을 처음 만난다. 태국의 '콘'은 인도문화권의 라마야나(Ramayana) 신화를 태국판 건국설화 라마키엔(Ramakien)으로 극화한 가면극이다. 궁정 예술의 숙련된 기예와 화려한 의상, 정교한 가면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전투하는 모습 등은 매우 흥미롭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태국의 전통 가면연희 콘의 한 장면.

10월 5일 오후 2시에는 부탄의 '다메체의 가면북춤' 공연이 펼쳐진다. 이는 불교축제 기간 중에 연행되던 탈춤 군무로, 동부 다메체 지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부탄 전역에서 연행되는 민중 가면춤이다. 공연과 국제컨퍼런스는 전석 무료(8세 이상 관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공연 열흘 전인 9월 24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063)280-1500, 1501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삶 공허함 채운 명상, 유튜브로 알려요”

① 명상TV 운영자 도연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 크리에이터 1기’ 위촉식을 가졌다. 불교크리에이터에는 사찰여행, 성지순례, 찬불가, 경전말씀 등 다양한 주제를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선정됐다. 불교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보자.



도연 스님의 유튜브채널 ‘도연 스님 명상TV!’ . 명상법 소개와 함께 명상 서적 소개, ASMR 등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도연 스님이 서울 봉은사서 노트북을 켜고 활짝 웃고 있다.

불교 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된 도연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교 관련 키워드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스님 중 한 명이다.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명상ASMR 등을 유튜브 명상TV채널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학자를 꿈꿨지만 2006년 출가에 뜻을 두고 스님이 됐다.

스님은 2016년 조계종에서 사미계를 받았지만 포교현장에서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서울 봉은사에서 대학생 지도법사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서울교대 지도법사로 학생들 지도도 시작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에는 명상만한 콘텐츠가 없다. 명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했던 스님은 출가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본인의 채널을 넘어 채환의 귓전명상, 홍익학당의 마인드풀tv에서도 명상 강연을 하고 있다.

스님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어느날 학교 선배 추천으로 간 명상센터서 감명을 받았다. 불교명상은 삶의 가치관을 바꿨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줬다”고 말했다.

스님이 유튜브에서 명상TV를 운영하게 된 것은 조계종으로 출가하기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님은 “불교가 시대에 비교적 느리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다. 출가 동기도 명상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하여 이것저것 시작했는데, 명상이 주 콘텐츠가 됐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명상TV를 통해 호흡법부터 최근에는 명상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소리를 전하는 ASMR 등을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디오클립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불자들을 만들고 있다.

스님은 “올해 들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상장비, 편집팀을 이뤄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며 “혜민스님의 혜민TV나 법륜 스님의 유튜브 채널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편적인 불교 명상에 대해 알리는 시도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스님은 명상음악 작곡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싱잉볼 등을 활용한 작곡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 나중에는 불교영성음악 등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나가야 탈종교화시대에 청년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봉은사 툇마루에 앉아 스님은 밝게 웃으며 오늘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노트북을 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숨도 5개 대학생 템플스테이 개최

9월 21~22일 마곡사 일대서 20여 학생 참여

청년문화공간 숨도(이하 숨도)가 9월 21~22일 대학생 연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총 5개 대학교에서 20여 학생이 참여했다.

대학생 연합 가을맞이 템플스테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7개 사찰 중 하나인 ‘마곡사’에서 진행됐으며, 마곡사에서 학생들은 참선 및 걷기 명상의 실습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의 숨 틔움’이라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원장인 능행 스님의 특강으로 학생들은 ‘성공’, ‘행복’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듣는 시간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냈다.

숨도는 “앞으로도 템플스테이, 다양한 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문화를 친숙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성전 편찬, 일정 문제 없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원장, 5차 회의서 밝혀

조계종이 사상 최초로 편찬하는 불교성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 회의에서 편찬이 늦다는 조계종 중앙종회 지적에 대한 해명이 나왔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 기획위원장 정인 스님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중앙종회에서 지적된 ‘불교성전 편찬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불교성전은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초안 원문을 내고 내년 4~5월 감수를 거쳐 6월 최종원고 완료, 10월 봉정이란 타임테이블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윤문 과정에서 험난하고도 치열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늦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인 스님은 이어 “불교 안팎의 높은 관심으로 혹여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지만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별 발췌 내용을 검토한 4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3장 검토회의가 이뤄졌다. 또 한역삼장의 경우 고려대장경을 저본, 신수대장경을 참고용, 빨리어 삼장의 경우 PTS본을 저본으로 하는 등의 불교성전 번역 지침 논의가 진행됐다.

번역 지침 논의에서는 부처님과 붓다의 호칭을 부처님으로 통일하고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용어가 상이한 경우 구마라집본 한자음 사용, 한자음보다 범어가 친숙한 경우 괄호 병기 등을 확정했다.

한편 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내로 4~5차례 회의를 더 가질 예정”이라며 “10월 전문위원회의 각장별 수정보완과 기획위원회의 4장 검토회의가 진행되며 11월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상용어의 아라비아 숫자 사용, 한글표기와 한자 병기원칙, 주석 사용의 지양 등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BTN, 인문·교양 중심 가을개편

불교적 관점서 해법 찾는
시사 프로그램 새로 선봬
세계적인 명상가 인터뷰도
인문 강좌·유산 탐방 ‘눈길’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가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인문·시사·교양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돼 눈길을 끈다.

BTN은 “10월 7일 가을개편을 단행한다”며 “이를 통해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불교역사문화 프로그램’과 ‘참신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불교교양 프로그램’ 등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들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이다.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붓다인사이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교적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불자맞춤형 개안(開眼) 시사프로그램이다. 패널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최순용 변호사,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10월 10일 첫 방송되며 한·일 관계를 주제로 패널들의 난상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10월 8일 첫 방송되는 ‘명상, 세상을 보다’는 세계적 명상 대가들의 인터뷰와 강연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열린 ‘명상축제(After Mindfulness, Urban Retreat)’를 촬영한 토론 및 강연과 지난 5, 6월에 미국 LA에서 열린 ‘BUDDHA FEST’에서 명상대가들의 명상에 관한 다양한 주제 강연을 비롯한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잔 브라흐만 스님과 노먼 피셔,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단독인터뷰는 살펴볼만 하다.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는 불교 설화를 살펴보는 ‘설화견문록’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개그맨 장재영,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리나가 진행을 맡았다. 10월 9일 첫 방송된다.

10월 10일 첫 방송되는 ‘출가’는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를 다룬다. ‘천년의 여행’은 방방곡곡의 불교문화유산을 영상언어로 수려하게 담아냈다. 첫 방송은 10월 7일.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0월 7일 첫 방송되는 ‘BTN과 조계종교육원이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는 각계 명사들이 불교와 인문학에 대해 강의한다.

이밖에도 ‘활안 스님의 천태지자대사 선교관(禪敎觀)(10월 9일 첫 방송)’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10월 8일 첫 방송)’ ‘광우 스님의 마음수행법회(10월 7일)’ 등도 새롭게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성민 기자

날마다좋은날, 수협과 어촌 봉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수협은행 ‘sh사랑海봉사단’과 함께 9월 21일 전남 해남군 산정리 어촌지역에서 한방 진료 및 해안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날마다좋은날은 지난 6월, 수협불자회와 수협은행 봉사단 협조로 강원도 양양 어촌마을에서 첫 한방 진료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봉사는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봉사단장 황채운) 봉사자 7명과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주화) 소속 한의사 2명이 동참했으며, 오전·오후 봉사를 통해 총 60여 명의 어르신에게 건강 상담 및 침, 뜸 등의 한방 진료가 진행됐다.

격려차 봉사 현장을 방문한 이기흥 이사장은 이동빈 수협은행장, 김진균 부행장 등 수협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해안가 청소 및 페어구 수거 봉사활동을 직접 하며 노동인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 자비의 손길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탈락한 아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스님들의 춤사위가 현란했다. 9월 21일 '도전 범종을 울려라' 패자부활전에서 지도법사 스님들이 유행가요에 맞춰 춤 경연을 펼치고 있다. 대회장은 스님들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새싹불자들에 희망을"… 새 장르 연 나란다 축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21일 동국대서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이 태어난 동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룸비니 동산! 부동산이라고 쓴 저기 아이 나가주세요."

동국대 팔정도 광장이 노란색 물결로 가득채워졌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과 이를 응원하는 스님과 학부모들로 가득찼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21일 동국대서 제11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의 백미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무대에서는 MC의 사회에 따라 웃음꽃이 활짝 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전국 사찰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해주길 바란다. 오늘의 나란다 축제가 인생의 추억이 되고 행복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제출한 첫문제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다양한 불교상식을 겨루기 시작했다.

"돌,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신 것으로 불자들이 그 주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기도 하는 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자신있게 화이트보드를 드는 아이들부터, 주섬주섬 옆의 아이를 보고 드는 아이들까지 흥미진진한 문제풀이가 계속됐다.

매회 라운드마다 탈락한 아이들이 나오고, 떨어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스님들은 최신 유행가에 맞춰 춤을 췄다. 긴장감 속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천암서 온 이혜령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았다"며 "스님과 어린이법회 지도 선생님이 응원해줘 기뻤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접전 끝에 봉선사 어린이법회 소속 이진우(의정부초3) 어린이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인기
외국인 참여 글로벌 마당과
어린이 4차산업 체험 마당
각종 부스마다 '인산인해'

이진우 어린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법회에서 교리공부를 한 것이 이번 대회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부에서는 조계사 신도 신종열 씨가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4차산업 체험 부스 인기만점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VR과 3D프린트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체험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교리경시대회 인원만큼이나 많은 아이들이 부스마다 가득했다. 이중 드론비행체험과 3D안경만들기 체험 부스는 참가자들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해초등학교에서 온 김형용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것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드론 비행기도 조종해보고, 로봇축구도 했는데 정말 재밌었다"며 "3D프린터로 안경을 만들었는데 신기하다. 학교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김현정 씨는 "가을 날씨도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당도 새롭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知)·덕(德)·체(體) 3개 존으로 나뉘어 구성된 글로벌 마당에서는 한국문화를 퀴즈로 배우는 'OX퀴즈'와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별 불교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무대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각 국가별 불교의상을 갖고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모국의 불교를 소개했다. 또 외국인 불자들이 함께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미니 명랑운동회'로 상호 국가간 화합의 장도 펼쳤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장소를 옮겨 열린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였다. '대대로', 'I am star', '미류' 등 저마다 준비한 율동을 통해 참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 스님은 "나란다 축제는 한국불교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란다대회 찰칵! 한장면



소녀상을 만드는 고등학생 불자들의 모습.



대회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4차산업 부스서 로봇축구를 하고 있다.



VR을 통해 사찰을 참배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



글로벌마당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외국인 대학생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5. 재생에너지



평창 월정사가 주한 영국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2015년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플러스이앤지(주)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지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박물관의 지열 냉난방실.

인류 미래 위한 '에너지 대전환'

윤호섭 · 하성미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전환'이다. 기존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충당했다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생산한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은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결코 갑작스런 정책이 아니다. 이미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산업화과정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에너지원을 확보해온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17년 45.4%에서 36.1%로, 원자력발전은 30.3%에서 23.9%로 줄었다.

정부는 에너지원별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해 도시와 농가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도 늘리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 정부예산 1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열에너지 활용하는 사찰들

불교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고민해왔다. 종단적 차원의 움직임은 드물었지만 일선사찰들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환경보전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앞장섰다. 선두역할을 맡은 사찰은 바로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포항 천곡사(주지 정오)다. 천곡사는 재가자 수행공간인 소천문화관에 지열에너지를 쓰고 있다.

천곡사는 2004년 행자부 교부세를 받아 지열에너지 시설 설계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부터 지열에너지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 현재도 지열에너지로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천곡사의 지열에너지는 지상과 지하를 순환하는 파이프로 연결해 땅 속의 온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로써 겨울에는 열을 끌어올려 난방과 급탕에 쓰고, 여름에는 열을 끌어내려 냉방에 쓰는 것이다.

정오 스님은 사찰에너지 관련 세미나에 수차례 참석해 지열에너지의 장점을 강조해왔다. 스님은 "기름보일러에 필요한 운전비가 100%라고 볼 때, 지열시스템을 가동하면 30% 정도의 전기료만으로 해결된다"며 "길게 100년을 내다보고 사찰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열에너지는 열기를 순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4시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석연료보다 오염도가 낮으며, 이미 완공된 건물도 주위 공터만 있으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찰 활용에서의 한계는 있다. 또한 초기시설비용이 높고, 지질에 따라 비용이 더 상승하기도 한다. 천곡사 역시 초기 설비비용만 4억여원이 소요됐으며, 50%는 정부 지원을 받았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점진적인 확대 계획

불교계 태양광 · 지열 등 활용
사례 많진 않아도 가치 높아
에너지 절감과 함께 병행돼야

정오 스님은 "지열시스템은 연중 24시간 냉난방이 필요한 건물에 적합하다. 템플스테이관이나 성보박물관, 종무원과 문화시설, 요양원 등 현대식 건물일 때 효율이 좋다"고 강조한다.

지열에너지는 천곡사뿐만 아니라 영축총림 통도사도 성보박물관에 활용 중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2007년 12월 지열시스템을 도입했다. 초기 비용은 6억 원이 소요됐지만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지열시스템 도입 전 월 400만원에 달하는 냉난방비가 필요했지만 지열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고장 시 수리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부품 등 교체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찰이나 포교당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재생에너지는 당장 이득을 보거나 곧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래 환경을 고민했을 때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각 사찰에 맞는 조건을 잘 살펴 환경보전을 위한 불교계 동참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찰 유휴지로 눈길 돌려야

천곡사와 통도사의 사례를 제외하면 사찰에서 활용되는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태양광에너지가 차지한다. 2015년 3월 평창 월정사와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가 월정사 경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린 이즈 그레이트 브리튼(Green is GREAT Britain)' 캠페인을 추진하던 영국대사관이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력해 사찰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친환경에너지에 관심을 보인 월정사와 협약했다.

월정사에 설치된 발전 설비는 6㎾급(1.2×1m 모듈 24장)으로 공사비 약 1400만원 중 1000만 원을 대사관 측이 지원했다. 강원도의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을 3.3시간으로 계산할 때 월정사는 연중 7227㎾h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 번에 나무 563그루를 심는 효과와 대등한 데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증기간이 25년, 최대 사용기간이 50년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광주 문빈정사를 비롯해 전력수급이 어려운 산내 암자인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등에도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일부 전력을 책임지면서 불교계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의 전각보다는 현대식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언론이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해 환경훼손 · 입지갈등 ·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보도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시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경사가 심하지 않은 유휴지를 갖고 있는 사찰이라면 부작용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거의 모든 사찰이 재생에너지를 고민할 때 경관 훼손을 우려한다. 하지만 태양광시설은 반드시 기와 위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지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된다"며 "기후위기로 인류의 10년 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관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값싼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불교계가 재생에너지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는 "불교계는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점차 늘려야 한다. 도심포교당은 신축 건물에, 산중사찰은 유휴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장에도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연기법의 진리를 따르는 불교에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인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함께 사부대중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에너지 절감'이다. 에너지 절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해 자연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 확대도 절실하다.

Festival of Martial Arts & Temple Culture
2019 화랑과 승군의 후예
제17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선무도포교 35주년 기념대법회
The 17th Golgul-sa Traditional Martial Arts Festival
The 35th Anniversary of Sunmudo World Propagation



무예대회 10.13(일) 골굴사
수 륙 재 10월 13일 10시 (대적광전)
산사예술공연 10월 13일 13시 (대적광전)
무예대회 10월 13일 14시 (대적광전)
선무도 승단심사 10월 12일~13일 오전

기념대법회 10.26(토)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극장
제3회 선무도 학술대회 13시
기념식 및 혜총큰스님 법어 14시
선무도 공연 15시

문 의 054-744-1689 www.golgulsa.com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 경상북도 · 경주시
(주)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주)다본금속 · (주)대일조선 · (주)삼천기업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재) 선무도 대금강문
(사) 세계선무도총연맹
한국전통무예총연맹
Golgulsa, Headquarters of Sunmudo

주최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주관 (사)한국전통무예총연맹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화합의 법석’ 범불교도대회 열린다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잔디마당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 단합과 위상을 위해 부산불교가 들썩이고 있다. 사찰에는 불교문화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자들은 행사를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신바람 나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축제는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범불교도대회로 오직 화합과 불교 위상 고취를 위해 불도 부산이 힘을 모으는 행사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부산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취지를 ‘불교 화합’으로 꼽았다. ‘화합만이 불교 위상의 밑거름이자 해답’이란 간절한 서원으로 여는 행사란 설명이다.

박수관 회장은 “불교문화축제는 부산 전체가 불도(佛都)가 되는 장엄한 예불 현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종단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잔치이자 단합의 현장으로 부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범불교도대회”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문화축제에는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쌍계사 등 부산경남에 위치한 조계종 교구본사와 삼광사를 비롯한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법연종, 총지종, 법화종 등 전국의 사찰에서 수행자들이 동참하며, 10만 명의 불자가 자리할 예정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시민들에게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교

전국 각 종단 사찰 스님 참석

10만 불자 운집해 화합 기려

시민 위한 축제 자비나눔 기획

“부산 전체가 장엄한 예불 현장”

선언문을 채택해 앞으로 나아갈 불교 역할과 화합을 강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기도한다.

박수관 회장은 “백고좌법회를 재현하고 스님들이 예경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며 “스님들이 삼보로서 바르게 존경받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축제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진신사리 이운식을 진행한다. 진신사리는 강원도 건봉사 치아사리다. 이운식은 행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일정으로 식전공연 이후 첫 순서를 장식한다. 이운식은 10만 불자들의 정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이운행렬이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불교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불교문화축제가 10월 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다. 박수관 회장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행사는 △육법공양 △진신사리 헌화공양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공로패 전달 △개회선언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대회사 △법어 △불교중흥 기원 △공지사항 및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자비나눔을 위해 1억원에 해당하는 백미 10kg 3500포를 불교복지시설과 부산진구, 금정구, 사상구 등 5개구에 전달한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 무대도 마련된다. 무대에는 가수 송가인, 모모랜드, 더 보이즈가 출연한다. 부대행사는 염주 만들기, 도자기 체험, 다도체험, 탁본, 법고, 불무도 시연 등 불교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이뤄진다.

박수관 회장은 “행사를 위해 조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범불교도대회에서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화합을 결의하자”며 참여를 독려했다.

‘화엄사 중흥조’ 선양사업 본격화

화엄사, 도광 · 도천 대종사 주제 학술세미나

화엄사 중흥조 도광 · 도천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1일 경내 화엄원에서 ‘화엄산문을 다시 열다’라는 주제로 근 · 현대 화엄사의 중흥조인 도광 스님(1922~1984), 도천 스님(1910~2011)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열고, 두 스님의 선양사업과 계승사업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기조발제 ‘도광 · 도천 대종사 선양사업의 방향과 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시작으로 △화엄사의 한국불교사적 위상(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 △근현대 화엄사와 도광 · 도천 대종사의 불사(이종수 순천대 교수) △근대 화엄사의 화엄한 전승과 도광 · 도천의 화엄행(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관태 연구원(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의 종합논평이 진행됐다.

주지 덕문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두 스님의 역할과 역사적 위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두 스님이 은자처럼 묵묵히 수행과 실천을 이어오셨기 때문”이라며 “승가복지의 정립과 구현, 수행환경 조성과 도제 양성, 포교 전략 수립 및 포교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 설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석길암 교수는 “화엄사는 1969년부터 화엄사에 주석하게 된 용성, 동헌, 도광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경허, 수월, 묵언, 도천 스님으로 이어지는 두 법맥이 화합한 화엄문도회의 노력에 의해 중창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일구고 있다”며 “두 스님의 실천행은 화엄의 보살행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검단선사 자비행 기린 문화축제

고창 선운사, 제12회 선운문화제 雨中에도 성료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1일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선운문화제는 보은염이운식을 시작으로 시화전 시상식, 부처님과 역대 조사를 기리는 헌다례, 산사음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운문화제에는 선운사 한주 법현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회 의장, 사등마을 주민, 관광객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사등마을 주민들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양민들의 생계를 위해 소금



굽는 법을 가르친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보은염 이운식을 재현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인해 만세루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도신 스님, 앙상블클라비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국악소녀 김태연, 가수 아이비 등이 출연해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300여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광사 “천태종 역대조사 원력 되새기자”

신도회 창립 50주년 맞아

조사전 건립, 말사 중 처음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의 불교중흥 원력이 담긴 도량 삼광사가 ‘조사전’을 기공했다.

조사전 기공식은 신도회 50주년을 맞아 상월원각조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25일 경내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삼광사 조사전은 천태종 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되며 2018년 4월 조사전 불사 계획을 수립, 같은 해 6월 28일 본산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9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280㎡(85평) 규모로 건립되며, 높이는 18m다. 주초석은 화강석에 원형기둥과 다포양식으로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9월 25일 경내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건립된다.

기공식은 △테이프 커팅 △시삽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조사 법어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개회사 △청법가 △삼정례 △입정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관음정진 △발원문 낭독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소백산에 세우셨던 대조사님 원력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기도로 하얀 연꽃 백양산에 거듭 피어올랐다”며 “가르침을 따르는 천태 종도들이 거룩한 스승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자 정성 모으고, 고귀한 인연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건립 불사를 서원했다”고 격려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광사 불자님이 개산 50주년을 맞아 조사전 건립의 원력을 더했으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을 받들어 정진 또 정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조사전 건립불사는 지난 50년 삼광사가 걸어온 정법의 길을 새로운 50년, 100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 등 승 · 재가내빈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상수동행’ 기증전

특별기념전 10월 27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특별전시 ‘상수동행’을 9월 28일~10월 27일 1층 월저실과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유물을 기증한 월저 김진조 선생의 상수(上壽), 100세를 축하하고 존경을 표현하고자 마련했다.

전시 대표 유물은 강세황(1713~1791)의 작품 ‘이제묘도(夷齊廟圖)’와 천경자(1924~2015)의 ‘타지마할’이다. 이제묘도는 중국의 유명한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표현하며 공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를 꾀하고 나아가 기증 유물을 통해 기증자와 세상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은 또 곡성 도림사 괘불탱화를 2020년 3월 29일까지 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 전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몸·마음·쉼’ 생명존중·자살예방 프로젝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19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19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13일(일) 11시
◈ 장 소 : 부산 범어사
◈ 내 용 :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 법회
◈ 참가대상 :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일 항쟁의 산실, 역경불사 꽃피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⑱ 대각사



종로 봉익동에 위치한 대각사. 대일 항쟁의 산실이었던 이곳은 근대 역경불사를 이끈 곳이기도 했다.

용성의 대각사 창건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 3가 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왼쪽 상가건물 뒤로 기와지붕의 처마가 살포시 드러난다. 이곳이 종로 봉익동으로 이 곳에는 용성 선사가 세운 대각사가 있다. 대각사는 여느 도량처럼 넓은 마당과 고풍스런 당우는 없다. 주변 지역 역시 상가와 민가가 밀집한 탓으로 숲과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도심 한복판에 사찰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어색함마저 있지만 대각사는 대일 항쟁의 산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곳에서 한용운 등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모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였으며,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던 까닭에 광복 후 그 고마움에 김구 선생이 이곳을 방문하여 선사의 뜻을 높이 기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각사는 규모는 작지만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선사가 대각사를 세운 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64년 5월 8일 전라도 남원에서 출생한 선사는 14세 때 꿈에 부처님을 뵌 것이 인연이 되어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였다. 이후 전국을 다니면서 안거와 운수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한국 불교의 선풍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구하였다. 한때 중국에서 건너가 선지식을 친견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귀국하면서 대중들을 위한 불교운동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 1911년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은 신도 집에서 법회를 하다가 53세인 1916년 이곳의 민가를 구입해 대각사를 창건하고 불교 개혁을 통해 민족중흥을 발원하였다.

용성에게 있어 불교를 믿는 것은 삼계의 大夢을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조선조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수행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런 병폐를 없애고 새 시대의 종교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자 시작한 것이 대각교 운동이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佛을 번역하면 大覺이기 때문에 대각교를 창립하여 우리나라 불교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세계와 중생이 모두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번뇌가 일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지와 내가 하나이며, 知覺의 성품이 잠복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 중생의 본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회가 상설화되는 것이 최선이었다. 법회를 통한 불교교육과 신앙심 고취만이 신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방안이 불교가 급변하는 사회에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으며,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불교가 앞설 수 있다고 용성은 생각한 것이다.

용성의 삼장역회 설립과 譯經 의의

대각사는 근대 역경의 발원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 끝에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이 완결되었지만 그 연원을 보면 이곳에서 시작한 삼장역회가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이 발원되고 마침내 대장경의 완역을 이루었으니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용성이 경전 번역의 서원을 세운 것은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 후 옥중 생활에서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없다는 사실과, 타종교의 한글번역이 상당히 앞서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이다. 그가 수감된 서대문 감옥에 여러 종교의 대표와 신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 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책 모두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 글로 번역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용성은 경전번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웠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 사람과 논의하였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해서 각 사찰에 공문을 보냈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비방하는 사람만 많았다. 주변의 협조가 없자 혼자라도 실행할 것을 결심한 용성은 1921년 출옥하자 대각사에 三藏譯會를 결성하고 번역을 시작하였다.

실제 용성은 예전부터 한문 경전으로 포교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우선 한문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인류가 생존경쟁의 현실에 직면하여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한문 공부에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미래는 불교학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은 철학, 과학, 천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등 배울 것이 많은 시대인 탓에 한문만을 공부하는 것은 문명 발달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이 보는데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누가 보더라도 즉시 알 수 있도록 번역되면 보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불교 대중화와 연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용성은 이곳에서 금강경 번역을 시작으로 1927년 11월 화엄경 번역을 마칠 때까지 매진하였다. 척박한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평생을 거쳐 경전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경전의 한글화와 전산화 작업이 진행됨을 볼 때 그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용성, 대각사서 삼장역회 결성해
1960년대 대장경 역경 시작
불교 대중화로 민족 정체성 지켜

용성은 그런 자신의 작업이 당대에 끝날 것을 염려하여 유훈으로 10事目 가운데 일곱 번째 불경과 어록을 100만 권이 넘도록 유포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실로 애정을 갖고 실행한 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성의 번역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첫째, 그의 경전번역은 항일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성은 3.1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처럼 독립정신을 강조한 수행자로 민족의 글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려 한 것이다. 용성의 경전번역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불교의 용어를 신선한 이미지로 재편하는 작업이었다. 경전 상의 게송을 우리말로 설법하듯이 바꾸고, 문어체의 딱딱한 표현을 구어체로 바꾸면서 언어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려 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교학의 발전이다. 경전이 읽기 쉽게 번역된다면 대중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중국 불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춘 수행자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급속도록 발전한 것을 보면 용성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불교 持戒精神의 천명

일본불교가 진출한 이후 계율에 대한 문제는 한국불교의 논쟁거리였다. 한국에 온 일본 승려의 생활은 확실히 달랐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畜妻營室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가 명치 5년에 승려의 대처식육은 승려의 임의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본말사법이 제정될 때에는 각 본말사의 주지를 비구계를 수지한 자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비구계를 수지할 때 대처식육한 자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대처식육에 관한 것은 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략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일합방이후 일제의 강점이 오래 지속되자 한국의 승려들은 일본 승려와 같이 점점 계율에 대해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는 1919년 1월에 이르면 일제에 협력하던 수원 용주사 주지는 일본 승려와 한국 귀족의 여자 그리고 한국 승려는 일본 귀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정도로 불교계에 만연되어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널리 퍼진 것은 일본에 유학한 한국 승려 가운데 대처의 분위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도 한 몫 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1926년 5월 본말사법을 개정해서 대처식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총독부는 불교의 사회화라는 미명 아래 승려에게도 육식대처의 자유를 허락하여 그들의 생활 결함을 보충하고 내적 생활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런 결정은 법규상으로 시대에 순응한 조치이며, 이로 인하여 종교계의 인생관이 전적으로 변화되어 불교가 더욱 사회화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논의는 당시 불교계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당시 한국 승려들은 이런 개정에 대해 1,500여 년의 因習制度를 혁신하는 일이므로 승려와 일반 신도들로 하여금 종래의 종교 습관을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시대에 시운에 순응한 조치로 여겼다.

그렇지만 이런 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유지하려는 수행자들이 단결하여 대처식육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용성이 있었다. 그는 1926년 5월 석왕사 주지 이대전, 그리고 해인사 주지 오회진을 포함한 127명의 승려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장래를 위해 대처식육의 생활을 금지해달라는 건백서를 총독부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고 불교계도 바뀌는 상황에서 간혹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기 시작하여 취처하는 승려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지금은 아주 펼쳐놓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불교 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망하게 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1차 건백서에 대한 응답이 없자 용성은 9월 2차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사법개정으로 승려의 대처화를 막을 수 없다면 대처와 비구를 구분하고, 비구를 위한 사찰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사법 개정의 논의는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처식육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26년 10월 총독부는 각 본말사법 제16조 주지자격 규정 '비구계를 구족'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승려의 嫁娶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개정 전 사법의 본사 주지에 대한 조문을 보면 연령이 만 40세 이상 되는 자, 비구계를 구족하고 다시 보살계를 수지한 자, 법랍이 十夏 이상 되는 자, 修學이 고등과 졸업 이상 되는 자였다. 이를 개정하면서는 제2호 '비구계 이하 15자'를 삭제하고 또 제16조 말사 주지 자격 가운데 제2호도 역시 삭제하여 주지는 비구계와 보살계를 구족하지 않아도 피선거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광복 후 정화운동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손실이 생겨난 것을 볼 때 선지식의 예견이 놀라울 뿐이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에너지(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에너지 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기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분별하지 않는 대화 기술, '경청'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⑱ 지난여름이 남긴 숙제, 상대 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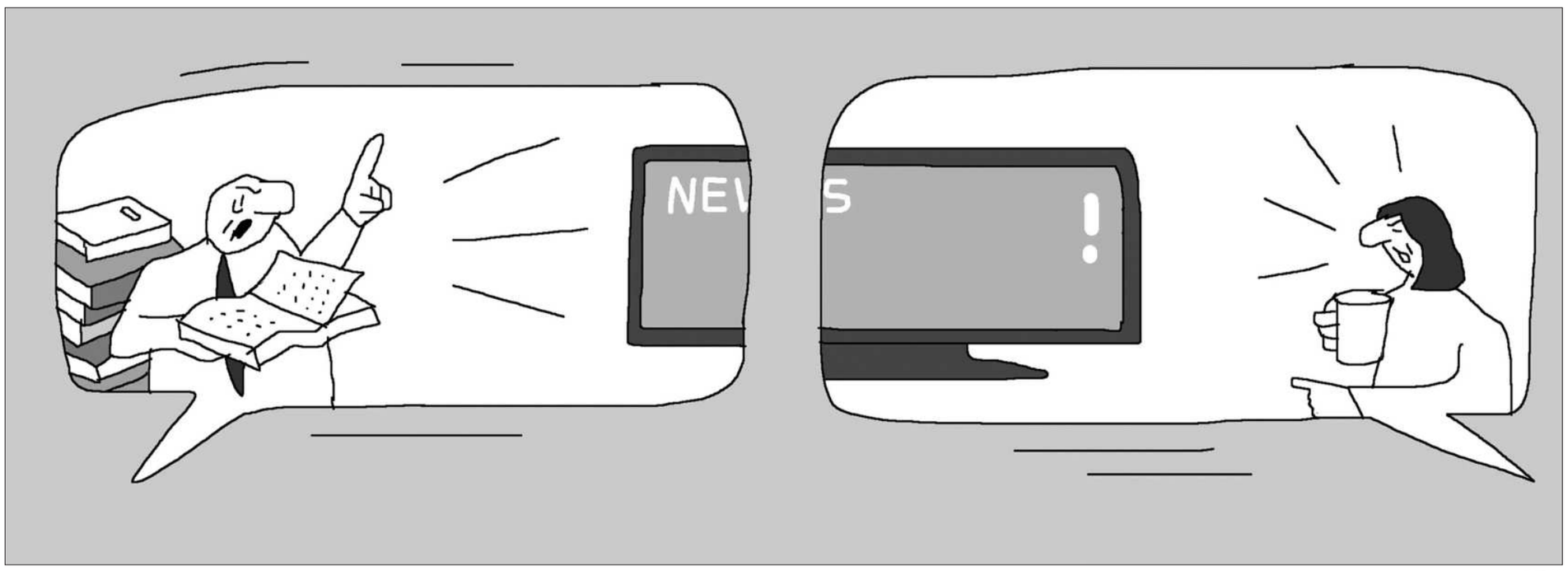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무더위 끝에 그나마 남은 기운을 쏙 빼고 정신을 사납게 뒤흔들고 간 광풍은 태풍 링링 탓만은 아니었다. 여름 내내 식탁의 화제를 달구고 모임을 소란하게 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시시비비는 9월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장관 지명을 두고 적합하니 못하니 천 만 국민이 한 마디씩 말씨름을 벌이느라 친구끼리 돌아서고 가족이 대립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사안의 무게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일인데도 몇 년 전 촛불집회와는 또 다른 반목과 갈등의 격랑이 모두를 지치게 했다.

스트레스가 유난했던지 몇몇 지인이 코치이니 모범답안을 달라면서 이런 경우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평소에는 정답기만 했던 친구와, 한 지붕 식구와 가볍고 무거운 입씨름에 몇 번 시달려본 지라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리라.

뉴스 따라 시작하는 말싸움

이른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오늘도 그 뉴스가 오프닝을 장식한다.

"저 사람도 도덕군자인 척 하더니 별 수 없네, 표리부동이야. 제도를 이용해서 자식을 일류대학에 넣고 말이야."

"입시제도가 그런 걸, 위법도 아닌데 뭘. 스펙 좋고 환경이 좋으니 자연스럽게 그 조건을 이용한 건데 지나친 비난 아니야?"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잖아. 배신감 들지."

"다른 정치인에 비하면 별 것 아니네. 그 정도 먼지로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건 심하잖아."

이렇게 시작하다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위해서 상대의 평소 신념이나 가치를 헐뜯기 시작하면 본질과 달리 감정싸움으로 변한다.

"당신은 말이야, 지나치게 기울어 있어. 무조건이 정권 편이냐"

"상대적으로 덜 나쁜 걸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렇지. 그러는 당신은 언론 보도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동창 단톡방에 올라오는 가짜뉴스까지 그대로 읊어대고 있네."

"뭐야? 남 말을 무조건 듣는다고? 이것저것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는 거야. 당신은 현명하고 나는 무지하다는 거야?"

"결국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의 저항에서 정도 이상으로 떠드는 거라니까. 뉴스를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는 당신도 입맛에 맞는 정보만 찾아보고 지금 그 논조로 말하는 거잖아."

이러다가 한 쪽에서 소리를 질러대면 파탄 나는 극단의 대립이 된다.

"됐어, 됐어. 그만하자고, 말이 통해야 말이지."

"먼저 소리 지른 건 당신이야. 대화를 안 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잖아."

결국 한바탕 소란 후 당분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결론짓는다. 마치 정치가 우리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세상의 일인 양.

정치라는 게 일상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자녀 입시부터 당장 부담하는 세금 액수와 환경 문제까지 바로 영향을 준다. 우리의 권리를 정치인에게 대신 맡겨서 힘을 주고 칼을 쥐어주는 것이니 결코 각자 인생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자니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지는 말자. 매일 먹고 싸고 입는 모든 게 다 정치 행위와 관련되니 말이다.

설득은 거리를 좁혀 다가가기

문제라면 경청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우리들이 할 말은 쌓이는데 들을 줄을 모르는 탓이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곰곰이 듣고 있으면 이쪽에서 설득을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듣고 어떤 이유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반론을 펼칠지 차분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을 빨리 끊고 이쪽 말을 할 시간만 노리고 있으니 대화는 겉돌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을 되풀이 하게 된다.

상대를 조종하여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거리를 좁혀 다가가려 할 때 참다운 설득이 된다.

의견이 다른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참을성이다. 상대가 공감할 때까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직관으로 알건 논리로 알건 확고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상대가 알아들을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상대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소중하다.

공감 얻으려면 경청부터 해야
선한 호기심 상대호의 일으켜
분별 떠난 포용의 자세 필요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의견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상대방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각자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관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더라도 모두의 학습을 향상시키려면 경쟁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첫 번째이며 그러다보면 진정한 학습이 된다고 보는 신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나누면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의 가치에 따를 것인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가치의 차이에 관해 논하지 않고 선택을 서로 강요하는 경우 그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백트래킹으로 경청의 느낌을 알게 한다

의견이 다른 이와 대화할 때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칭대화의 기술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1. 늘 강조하지만 먼저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상대를 이기겠다는 생각 이전에,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선한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호기심이 있으면 선량한 지성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쪽의 선한 의지는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이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호의를 갖게 한다.

2. 경청이 끝났으면 상대의 주장을 짤막하게 되짚는 백트래킹을 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하는데 내 생각은 이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는 항상 그 근거를 구체화해서 쉽게 설명하자.

거창한 이론보다는 실증의 사례나 경험이 더 큰 공감을 일으킨다.

"주변에 이러한 경우가 있던데 그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 혹은, "이렇고 저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을 당해보니 어떻더라." 와 같은 식으로.

저명한 이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면 그 말이 옳다는 사실을 근거를 들어 또다시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유명한 이의 말이라고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을 토대로 주장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도 상대가 자주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한다면 참을성 있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같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음과 같은 말로 화제를 바꾼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마무리가 무례하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신도 존중하는 태도다.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논리가 딸려서 고집스러운 태도만 계속하다가 유쾌하지 못하게 대화를 끝내면 되짚으면서 후회하게 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해야 했는데 왜 성난 태도로 고집만 부렸지?'

자신이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성숙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분별하지 말고 포용하는 법

붓다께서는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 하셨다. 불교에 입문하고 가장 어려운 실천이 분별하지 않음이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말인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아님도 있을 터인데 어찌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분별의 무용함을 알기 위해서는 불교철학의 근본인 공과 무아에 다가가야 했다.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는 무아를 깨우치면서 자의식에 대한 집착이 분별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자아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방법이 분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분별하지 않음의 참다운 의미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분별하지 않음은 이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옳지 않음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상대를 너그럽게 포용하라는 뜻이 아닐까.

옳고 그름은 자신의 기준이나 사회 집단이 가진 통념의 기준에서 비롯한다. 새로운 기준이나 변화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느끼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의식의 불꽃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불교가 추구하는 마음의 안녕과는 점점 멀어진다.

이 글은 사실 반성문이다. 나 역시 의견으로 대립하는 상대를 포용하지 못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대상에게 저항하면서 분노라는 부정의 에너지가 온 몸을 뜨겁게 하는 경험을 했다. 상대를 미워하고 그 비판을 되돌려주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강퍅한 마음을 가졌다.

성찰은 늘 뒤늦게 일어난다. 명색이 코치이면서도, 공감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인 지난 계절의 성숙하지 못했던 대화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과 다짐이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교육원
정행스님의 융합 가족세우기
2급과정 수강생 및 청강생 모집

- 불교의 새로운 수혈 상담기법과 실천법 -

■ **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및 강의하실 분, 창업하실 분 모집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
■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자신의 문제에 접근 해결 하고자 하는 분

■ **교육내용** : 가족과의 관계에서 얽힘을 풀어내는 집단상담 개인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내면의 고민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고 고민과 직면할 수 있으며, 치료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조직상담, 기타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교육원 학술관 279호에서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안내 간사 **010-5212-7949**
집중워크숍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17시 참여가능
내담자는 접수순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세우기 각 지부 모집 ◈
도시에 위치하고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 곳
안내전화 **010-8634-7851**

부산 수영지부
전철 남천역 2번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2-19호 학마을 명상 선원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안내 : **051)754-3375 / 010-8634-7851**

새로운 가족 **동대구 지부 (융합명상심리상담 아카데미)**
전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커피 옆 건물 오토바이가게 2층
주소 : 대구시 동구 안심로 251번지 (2층)에서 **9월 29일 일요일 10시** 첫강의가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 내 : **053)-625-0089** / 반야행 : **010-9568-7447**

※관심이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합명상 심리상담 아카데미(학마을명상)

삭발에 가사장삼의 스님을 보면...

세상물정에는 좀 어두운 분....하며 어설프게 채워놓은 염불시설 때문에 한국 사찰의 스님들이 스트레스와 땜질보수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최고 염불시설의 길!

앰프다루기 1초의 간단견본으로 법당에서 소리를 비교! ... 장난감 소리의 차이를 확인 후 현 법당시설비의 절반값에 견본 이대로의 시설만이 어설픈바가지 시설 때문에 받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평생 염불이 신명나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염불시설로 가는 길입니다.

▣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확! 달라지는 소리체험 후마이크만 구입 가능
▣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제품 국산, 마이크는 이태리산, 무상A/S기간 7년,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방송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하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無明, 스스로를 속박하는 행위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⑱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색을 연하여 생긴 부정사유는 어리석음, 치를 낳는다. 바로 색 · 성 · 미 · 향 · 촉 · 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은 색이라 한다. 색으로 인하여 생긴 부정사유가 치를 낳는다. 치가 곧 무명이다 치심으로 추구하는 욕을 애라고 한다. 애가 짓는 행위를 업이라 한다. 거꾸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림 · 강병호

무엇이 존재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12처가 불교다' 라고 말씀하셨다. 12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나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금이 부처님 당시라고 생각하자. 불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부처님께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인식시킨 출발점은 "내가 있다"였다. 나라는 존재는 6근으로 이루어졌으며 6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이다.

나를 중심으로 안 · 이 · 비 · 설 · 신 · 의가 있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의 6경이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로 맛을 느낄 수 있다. 몸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고, 법은 의지로써 '의' 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인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귀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있다 를 인식한다. 나로부터 출발했을 때 모든 것은 6근과 6경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출발점은 인식으로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죄를 지었다 착한 일을 했다하는 이런 행위를 두고 만약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면 모든 책임은 신에게 있는 것이며, 신을 접어두고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인식은 부처님께서 설명한 가장 위대한 '의' 로써 모든 행위의 책임은 의에 있는 것이다.

출발의 시작점은 '나'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죄악이라든지 죄악에 대한 책임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자신의 의지인 '의' 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죄의 근원은 내게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여기서 인연과의 법칙이 나오게 된다. 결국 존재는 인식이며, 인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있다' 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는가는 눈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다. 눈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존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체의 접촉을 통해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촉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냐, 무엇이 존재하느냐고 했을 때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12처엔 법칙이 있는가

나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이 있기에 느낀다. 이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래서 12처설은 나를 이루고 있는 여섯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인 안 · 이 · 비 · 설 · 신의 6근과 대상이 되는 6경의 경계인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을 합하여 12처가 된다.

예를 들어 동물들 중에 네 발 달린 동물도 있고 눈이 없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또 촉감만 느낄 수 있는 동물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5근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식할 수 있는 능력 여섯 개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 보이는 대상인 여섯 개는 6경으로 합해서 12처이다. 12처의 존재 법칙이 연기법칙인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인식이 나온다.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라

오늘은 부처가 되는 가장 소중한 12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부가 하기 싫지만 조금씩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진' 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라고 부탁하였다.

>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색'**
> **이로 인한 부정사유로 '치' 생겨**
> **'애', 치심 추구하는 욕망 산물**
> **바른 사유가 正見하는 요인**

노력하는 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인생을 백년으로 볼 때 조금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더 벗어날 수 있지만 수십억 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광명이 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6근과 6경의 활동영역

부처님께서 중부 니까야 경전과 잡아함 334경에서는 12처를 6근이라 하지 않았다. 6근을 설명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제일 먼저 인식시키려고 한 것은 5근이다.

기본적으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서로 다른 다양한 경계와 행처(行處)가 있어서 다른 것의 활동 영역을 인식하지 못한다. 즉, 눈을 통해서 보기만 하지 눈을 통해서 듣지는 못하는 것이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인식한다. 눈은 보이는 작용을 하고 귀는 들리는 작용을 한다. 눈으로 소리를 못 듣는다. 다른 영역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눈으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5근의 의지체는 무엇이며 활동영역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묻는다. 분명히 5근은 인식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5근은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5근인 눈은 볼 수만 있고 귀는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있고 코는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만 있고 몸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설명한 후 5근의 의지처는 무엇인가? 그들의 활동영역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냐고 묻는다.

분명히 눈을 통해서 본다.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눈을 통해서 인지하는 자 누구인가? 6경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고 5근은 무엇에 의지하는지 5근의 뿌리를 설명하였다.

"존자여 5근의 의지처는 의이며 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근의 의지처는 의이며 의가 그들의 활동 영역인 것이다. 눈만 있어서 대상을 보면 아무 것도 인식을 못한다. 눈은 보는 작용만 갖고 있지 보는 작용에 대한 인식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인식하느냐 바로 의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가장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진다. 5근을 통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이다. 이 5근을 통섭하고 5근의 활동영역을 인지하는 5근의 의지처를 부처님은 '의' 라고 설명하셨다. 5근을 넘어서 6근이 인식된다. 5근은 그들의 활동영역을 인지할 뿐이다.

'존자들이여, 안근, 비근, 이근, 설근, 신근은 무엇에 의지하여 머무는가' 라고 부처님이 묻는다. 5근은 수명에 의지해서 머문다. 즉 내가 죽으면 5근도 없다. 바로 5근은 살아있는 것에 의지하여 머문다. 결국은 살아있기 때문에 5근이 있고 5근이 뿌리가 되어 6근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안(眼)은 무엇인가

잡아함경 334경의 내용들은 미시적 내용이고 거시적 내용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안(眼)은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속박이 있다.' 여기서 안, 즉 눈이란 무엇인가? 인연과를 생각하면 된다. 어떤 것이 안의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되는가? 바로 안은 업이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된다. 나의 전생에 생긴 업에 의해서 눈이 생긴다는 것이다.

업은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속박이 있다. 어떤 것이 업의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되는가? 업은 애가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뿌리는 애욕이다. 이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틀어 애욕이라 한다. 이 몸뚱이를 이루는 근간은 애를 짓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된다.

애는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속박이 있다. 어떤 것이 애의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되는가? 애는 무명이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된다. 바로 무명 때문에 애가 생긴다. 애욕이 생기는 것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므로 이것에 의해 바로 애욕이 생기게 된다.

무명은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속박이 있다. 어떤 것이 무명의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되는가? 무명은 부정사유가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된다. 팔정도에서 '바르게 보라' 고 하는 '정견', 이 같은 정견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르게 생각하라(正思惟)' 다.

무명이 왜 생기는가? 정사유를 못하는 부정사유 때문에 무명이 생긴다. 바르게 생각하면 무명을 깨칠 수가 있다.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무명이 된다. 여기서 무명을 깨트리는 것은 정사유부터 시작된다.

부정사유는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속박이 있다. 어떤 것이 부정사유의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속박이 되는가? 색을 연하여 생긴 부정사유는 어리석음, 치를 낳는다. 바로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은 색이라 한다. 색으로 인하여 생긴 부정사유가 치를 낳는다. 치가 곧 무명이다 치심으로 추구하는 욕을 애라고 한다. 애가 짓는 행위를 업이라 한다. 거꾸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의지적 작용과 필연적 반응

모든 것을 12처라 했을 때 12처에 6근은 의지적 작용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6경은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의지적 작용이란 우리는 보려하고, 들으려 하고, 촉감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적 반응의 속성을 갖는 것은 6근이며 6경은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연과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인이고 연은 나를 둘러싼 대상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갈려고 하는 의지적인 작용을 하고 의지적 작용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대상은 필연적으로 반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깨끗하고 맑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위가 맑게 따라오고 내가 탁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위는 탁하고 악하게 된다. 이것이 인이고 연이고 그것들이 합당한 과를 낳게 된다. 12처인 6근과 6경이 합해서 연기를 태동시키고 기본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6근 6경에 대해서 삼법인의 속성을 말씀하신다.

〈영남대 의대 교수〉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다가온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어야



新 불교사자성어

㉞ 좌탈입망(坐脫立亡)

'좌탈입망(坐脫立亡)'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앉은 채로도 죽고(육신을 벗어 버리고), 선 채로도 죽는다'는 뜻이다. 수행의 힘, 선정(禪定, 참선)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선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육신의 생사, 곧 죽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행자가 정진 수행을 하여 앉은 채로도 죽을 수 있고, 선 채로도 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대단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나라 때 등은봉(鄧隱峰, 생몰연대 미상) 선사는 거꾸로 서서 입적했다는 일화가 있다. 등은봉 선사는 평소에도 매우 괴팍했는데, 하루는 제자들에게 "고래(古來, 과거)로 서서 죽은 사람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제자들이 "있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느냐?"하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고 답하자 등은봉 선사는 즉시 거꾸로 서서 물구나무서기 자세로 입적해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비를 하려고 해도 시신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등은봉 선사에겐 비구니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오라버니는 살아생전에도 괴팍한 짓만 하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애를 먹이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고 하면서 오빠의 시신을 손으로 '탁' 치니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

또 임제의현(臨濟義顯, ?~866)의 도반인 보화(普化) 선사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관 속에 들어가서 열반했다고 한다. 〈임제록〉에도 나오는데, 그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 뚜껑에 못질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 관을 열어보니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달랑달랑 울릴 뿐이었다고 한다.

이 두 선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 무근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각각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등은봉 선사 이야기는 생사대사(生死大事), 즉 '죽는 것이 큰 문제'라고 떠드는 안목 없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보화선사 이야기는 '공(空)'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근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방한암선사(1876~1951)는 1951년 음력 2월 15일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적했는데, 벽에 기댄 채 입적했다. 이 장면이 마침 6.25동란 중 오대산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정훈장교(김현기)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공개되었는데, 사진은 벽에 똑바로 기댄 채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약간 기울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좌탈입망은 전설처럼 회자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는 거의 없다. 생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수행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벽에 기댄 채 입적은 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일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안(正眼), 정견이 없는 어리석은 수행자일 것이다. 수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른바 생체학적으로 죽음을 자유자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찾아와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 찾아오면 때가 되었음을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 그것이 수행자와 비수행자의 차이일 것이다.

'좌탈입망(坐脫立亡)'은 '좌탈(坐脫)'과 '입망(立亡)'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다. '좌(坐)'와 '입(立)'은 모두 '앉은 채', '선 채'라는 뜻이지만, '그 자리에서' 또는 '즉석'을 뜻한다. 선으로 해석하면 '즉석'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다(坐脫)' 혹은 '그 자리에서 번뇌 망상이 모두 없어졌다(立亡)'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다니…



격절록 강설

㉞ 제13칙 조수한국(棗樹漢國)

[古則과 着語]

擧, 棗樹問僧 "近離甚處" (常程) 僧云 "漢國" (也是) 樹云 "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 (頭角生也) 僧云 "苦哉 賴值問著某甲 (觸着便作屎臭氣) 問著別人則禍生" (似則似 只恐龍頭蛇尾) 樹云 "作什麼" (也要問過) 僧云 "人尚不見有 何佛法可重" (已是禍門) 樹云 "闍黎受戒來多少時" (可惜許 拖泥帶水) 僧云 "二十夏" (忘前失後) 樹云 "大好不見有人" 便打 (郎當 葛藤愁殺人)

조수(棗樹)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일반적인 절차다.]

"한나라(漢國)에서 왔습니다." [역시 그렇지.]

"한나라 천자(漢國天子)는 불법을 중하게 여기는가?" [(말하면) 머리에 뿔이 난다.]

"(말하기) 괴롭습니다. 다행히도 제게 물으시는군요.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면 화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비슷하다. (하지만) 단지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한다.]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사람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불법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미 재앙의 문이 열렸다.]

"스님! 계 받은 지 얼마나 됐지?" [애석하구나! 자질구레하다(자질구레한 것도 묻는구먼).]

"20년 되었습니다." [앞도 잃고 뒤도 끊어졌다.]

"정말로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 바로 쳤다. [시원찮다. 그러나 그 말이 몹시 사람을 걱정스럽게 하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這僧棒即喫 要且去不再來 (旁不甘) 棗樹令雖行 爭奈無風起浪" (便打云 也有風浪 洪波浩渺 白浪滔天)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이 스님이 비록 방망이는 맞았지만 내쫓아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옆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조수가 영(令, 법령)을 비록 행했을지라도,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선상을)치고 말했다. "역시 그래도 풍랑이 있다. 큰 파도가 한 없이 넓고 아득하며, 흰 물결이 하늘을 뒤덮었다.]

[評唱 1]

棗樹和尚 五代時 在湖南界上 劉王名儼居廣南 僭為漢國 這僧從彼中來. 古人出一叢林 入一保社 全以此事為念 不似今人只管打閧過日. 遇人問著 殊不辨端倪 面赫赤地 無言可對. 蓋謂無蘊藉底工夫也.

조수 화상은 오대(五代) 때 호남(湖南) 부근에 있었다. (그때) 유엄(劉儼)이라는 왕이 광남(廣南)에 있으면서 주제넘게 한나라(漢國)라고 참칭했는데, 이 스님이 바로 거기서 왔던 것이다.

고인은 총림에서 나와 어느 절(保社)에 들어가도 전적으로 이 일(此事)만을 생각했으니, 요즘 사람들이 단지 싸우기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 물어보면 전혀 일의 실마리도 가려내지 못한 채 얼굴만 붉으락푸르락하니, (이런 놈들은) 무언으로 상대해도 된다(無言可對). 쌓은 공부가 없기 때문이다.

---

*조수(棗樹): 전등록 제24권에서는 당나라 때의 승려로 악주(鄂州) 황룡회기(黃龍晦機) 선사의 법손으로 전한다.

*유엄(劉儼, 895~948): 돌궐 사타부 출신의 유지원(劉知遠)을 뜻한다. 947년 후한의 초대 황제로 즉위해서 1년 만에 사망, 아들 유승우(931~950, 주왕이라 불림)가 제위함.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㉞ 이해의 길 14

현실 받아들일 때 고통 사라져

지난 호에서 마음과 현실의 간극이 집착을 낳고 이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삶이 괴로운 것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 붓다의 진단이다. 따라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涅槃, Nirvana)이라 하는데, 사성제의 세 번째인 멸성제(滅聖諦)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다.

그런데 집착을 버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던가. 우리가 단순히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당위(當爲)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생각과 현실의 괴리를 성찰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집착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집착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아하, 그렇지.' 하고 나의 실존적인 문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생각과 현실의 간극은 조금씩 줄어들며 집착의 불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생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에 있다. 먼저 현실이 마음을 쫓아가면 당장엔 괜찮을 것 같지만, 고통의 근본 원인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할 위험성이 크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다고 말하곤 한다. 요즘처럼 고령화된 사회에서 젊게 살려는 노력에 딴죽 걸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지나쳐 집착으로 이어지면 고통이 뒤따른다. 여기에도 마음은 젊은데, 현실의 몸은 늙었다는 간극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주름을 제거해주는 보톡스나 성형수술은 늙은 몸이 젊은 마음을 따라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삶의 활력소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젊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영원히 젊어지는 샘물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현실을 따라가면 어떨까? 젊은 마음이 늙은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마음도 늙기 마련이다. 마음 역시 무상하기 때문이다. 이를 쿨하게 받아들이고 늙은 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지나간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늙음에는 젊음이 범접하기 힘든 삶의 의미들이 담겨있다.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를 어찌 젊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젊음은 근육이 만들어낸 인연이지만, 늙음은 주름이 만들어낸 인연이다. 복서의 주름에는 링과의 인연이, 정치인의 주름에는 유권자와의 인연이, 농부의 주름에는 흙과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모두 지나온 삶의 소중한 역사다. 그 역사를 이끌고 온 주름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 것이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행복은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현실을 따라갈 때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다. 마음이 과거권력이라면, 현실은 현재권력이다. 과거권력이 현재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를 쿨하게 받아들으면 단번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사성제의 네 번째인 팔정도(八正道)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젊어지는 샘물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의 약이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생명수 또한 없다.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어리석은 믿음, 즉 미신(迷信)이다. 아들을 잃은 키사 고타미도 이런 믿음에 기초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붓다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직접 느끼도록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면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냉정해보이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불교는 순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니다.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붓다는 미신에서 정신(正信), 즉 바른 믿음으로 안내하는 길잡이(導師)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마가목」건강식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영가 찾는 법

명리학

초보반 | 대상 | 명리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과정 | 3개월(수료후 실전반 수강)
| 수강료 | 3개월 30만원 (월 10만원)

실전반 영가 찾는법 집중강의
| 대상 | 명리기초 완성자
| 과정 | 3개월
| 수강료 | 3개월 60만원 (월 20만원)

육효학

초급반 3개월 과정 (월 10만원)

실전반 3개월 과정 (월 20만원)

오시는 길
동작구 사당동 1039-13(사당역 8·9번 출구 200m)

백암역리원 02)597-1101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청룡장 수훈

9월 25일 '평창올림픽 공로'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 IOC위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공로로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훈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9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서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공자 전수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체육훈장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받았다.

이 행사에는 이기흥 회장과 더불어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송승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예술총감독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회장과 이명호 회장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각각 받았다.

이기흥 회장은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지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인류화합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스포츠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호국영령 위로한 지장선원종

제2회 화산전투 호국영령위령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총본산 지장선원(주지 혜봉)은 9월 20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영도벨벳 연수원에서 제2회 6.25 화산전투 호국영령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과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스님, 김제현 호국영령위령제 봉행위원장, 장광수 화북2리 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선원장 혜봉 스님은 "6.25 화산전투는 1959년 9월 6일부터 15일 사이 군위군 고로면 화산 일대에 국군6사단과 북한군 제8사단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운 절체절명의 전투였다"며 "이 전투에서 국군6사단 소속 1만7014명의 꽃다운 젊음, 입대를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름 모를 계곡과 수풀에서 외로이 쓰러졌다"고 호국영령을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두 번째로 위령제를 봉행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해 이고득락을 돕겠다"며 "국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길러 나라 사랑과 민족화합을 도모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봉행인사를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심신수행 요가와 禪 수행을 동시에"

Interview

파주 유가선원 개원한 현천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헹가요가와 선수행 접합
서울·대구 이어 파주 개원
동안거부터 수좌 스님 방부

"좌선 위주의 수행에서 심신이 함께 수행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요가와 참선을 함께 해 자연스럽게 일상 행주좌와에서 의식이 깨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새롭게 문을 연 도량에서 현대시대에 맞는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 수행의 원형으로도 평가받는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된 수행이다. 고요한 상태에서의 집중을 이끄는 요가와 한국불교 선수행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수행 도량이 문을 열었다.

한국아헹가요가협회장 현천 스님은 최근 파주 법원읍에 '대한불교조계종 유가선원'을 개원했다. 1600㎡ 규모의 유가선원은 선과 요가 실수를 위한 법당을 비롯해 다실, 공양간, 지대방 등을 갖췄다.

현천 스님이 전하고 있는 아헹가 요가는 인도 요가수행법 중 아헹가 선생이 고대 요가를 현대 의학 및 과학과 접목해 현대화한 것이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대학원,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 후 선방에서 수행해온 현천 스님은 인도 아헹가요가연구소에서 요가를 배웠다. 이후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비롯해 봉암사,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직접 요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아헹가요가협회장으로서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에 아헹가요가센터를 열어 전통 아헹가요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은 최근에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프로그램으로 '수행과 요가' 강연을 했다.

현재 유가선원에서는 아헹가 요가 기본자세 및 호흡법에 관한 9개월 과정의 지도자교육과정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매주 주중 오전 9시와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스승과 제자가 함께 수련하는 전통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스님은 "요가의 경우 재가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님들도 화두참구에 도움이 되는 요가수행을 통해 수행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올해 동안거부터는 선원 방부도 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천 스님은 또 "참선 수행 과정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 유지로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행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잘되는 것"이라며 "바르게 앉고,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화두가 성성한 경지가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질환 예방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선원에서는 재가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과 군장병 특화 단기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천 스님은 끝으로 "파주 유가선원은 수행에 맞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유가선원이 요가 보급과 함께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운문인 자긍심, 전법교화로 승화"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의
장학금 전달·향후 계획 논의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진광)은 9월 23일 경내 선열당에서 운문사승가대학 제48차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동문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율주 일진 스님, 학장 진광 스님,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한 동문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 안건토의에 앞서 전임 동문회장 동진 스님과 신임 동문회장 일지 스님의 이·취임식이 열렸으며, 모교 발전을 위한 의견토론과 출판비 보조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학사과정 혜공 스님과 석·박사과정 현응 스님 등 학업을 이어가는 비구니스님 15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자고로 좋고 훌륭하고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위대한 스승이 되지 못해 한편으론 부끄럽다"며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이 일선 포교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이는 저의 기쁨이고 희망이며 자랑이다. 항상 운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스님들이 회의에 앞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임회장 일지 스님은 "운문사의 역사를 함께해온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신 대중 스님과 구순을 맞이하신 회주 스님을 도와 수행과 교학, 저술활동에 앞장서 소임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걷기명상'을 실시하며 대중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자비나눔 기금을 기탁하는 등 자비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종단 개산 의미, 대대로 계승"

관음종 태허조사 탄신 115주년 추모다례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23일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홍선 조사의 탄신 115주년을 맞아 순천 선암사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원로의장 법륜 스님, 종회의장 법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윤호섭 기자**

은해사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돈관 스님 "오늘만큼은 모두 천진불 되길"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21일 경내에서 제1회 은해사 전국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을 개최됐다. 이날 주어진 주제는 자유상상화, 은해사 경내 풍경과 수채화, 은해사 및 부처님이었다. 주지 돈관 스님은 "경내 법당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니 오늘만큼은 산사의 상황표현과 사고 전환의 내용으로 천진불이 되어 달라"고 인사말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다가올 겨울, 온기 나눠요"

진안 쌍봉사, 이웃에 연탄·난방유 전달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9월 23일 다가올 추위에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는 이웃 13가구에 자비의 연탄 2,400장과 난방유 1,000리터를 전달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겨울이 유난히 긴 지역인데 이웃들이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섬김봉사단과 함께 연탄나눔활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2호 | A13 | 전면광고

도둑의 침해를 당하면 그 괴로움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근이라는 도둑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그 해는
지극히 무거울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펜션(육송 목재 사용)
산신각	

원명 010-4300-9104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평생돈벼락 운(運재테크)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영통철학
영통철학 1개월 완성 (책임 지도)
• 고승비법 전수 •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3936-2295

절일 도와가며 남은 인생 수행하면서 부담없이 같이 사실 분
60세 전후 운전면허 소유 남자
문의 010-8640-0108

소포장 동지팥죽
11월 30일 마감, 500g 3000원
사암법회용 100개단위
신도님께 법회후 판매도 가능
큰포장은 10L, 상담후 접수
문자접수 010-3410-0004
도평스님 043-744-9997
농협 356-0070-5251-33
동지팥죽 저작권 있습니다.

효보당108사주(모집)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5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결혼신청안내
- 부모님께 효도를
- 꼭 짝을만나 행복을
광복사 결혼상담실
02-306-7988
010-5624-1365

대주스님의 특수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스님에게만 ? 전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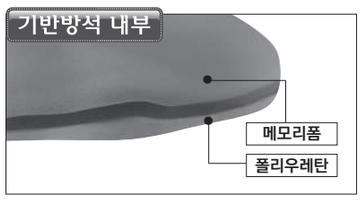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평행수기법(계곡수 치유)
계곡수(물)로 병든 몸을 치유하는법
❶ 만성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 고도비만인 분
❷ 면역력이 떨어져 항암치료를 받지못하는 분
❸ 수족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
❹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및 휴양이 하고픈 불자
❺ 평행수시 동호인 들은 공덕사로 오시면 안전하게 평행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성로 205 공덕사
010-3549-2270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168-2800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문의 |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2호 | A14 | 전면광고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본행집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양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5층 중 3층. 약 40여평
- 월세 : 1백 3십만원(근처 시세 10평 미만 원룸도 6-70만원)
- 내용 : 10년 이상 운영. 건강때문에 양도
- 조건 : 명리 및 작명. 건강 관리 등에 능력있는 분에게는 시설비 및 보증금 없음 ● 최상의 위치와 조건

02-571-91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 총 5,83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1동. 극락전 1동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교통편리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 임대 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주인직접 010-4225-0012(주,야)
02-403-3333 / 031-772-1251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1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 평당 11만원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010-7628-99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9-1
- 대웅전 23평 목조. 산신각 8평 목조
- 요사채 60평 2층. 조립식 방사 15평
- 하천부지 약 40평. 총 1680평
- 가액 : 6억

010-8697-8568
010-9044-7347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자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3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8번지 외
- 한옥 및 대지 매매(지리산 청학동, 단성IC 40분 거리)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위 전, 임야 부지 있음)
- 가액 : 17억 5천(4개동, 분할 매각 가능)

010-3835-713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황토벽돌 전원주택)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

010-9411-5302

서울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37평. 2층 법당. 종무소. 방1. 공양간. 차실. 남여 화장실. 주차타워
- 보증금 3000 / 월 80만원
- 시설투자 : 5000 중 1700만원(협의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61-4402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전국사찰안내

-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조성 잘되어 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언제등 양도가능

스님 직통 010-2607-711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 대지 400평 (주차장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심야보일러
- 마당에 지장보살 입상
- 가액 : 2억

010-3671-5366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인법당)

- 위치 : 부산 동래 금정마을(17년 운영)
- 대지 : 약 66평. 건 32평. 슬라브(반지하방 3평. 다락 3평)
- 법당 27평. 방3 별도 외 약사 불입상 5층석탑
- 마당 전체 약 30평. 종무실. 공양간 가건물
- 가액 : 3억 9천(대출 1억 5백 포함)

주지 010-3842-612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교통요지. 지하철/버스 2분 거리
- 대도로 변 3층 건물 3층. 약 50평
- 옥상 사용 가능. 주변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500 /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4514-0384

암자안내

- 위치 : 상주시 일원
- 대지 : 약 오백평
- 법당 약 27평
- 요사채 25평

010-5152-122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 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5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55-238-6772
010-9422-123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에서 20분 거리
- 사찰 총 500평. 종교부지 350평. 임 150평. 법당 20평(원통 보전). 요사채 3동
-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 넓음
- 도량 내 많은 나무와 잔디로 조경
- 스님 타계로 급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430-467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 3층 건물 중 2층 전체
-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1천 / 월세 1백만원
-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2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서울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남부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서향 코너
- 보 500 / 월 50 권리금, 부가세 없음
- 특이사항(건물주가 거주하면서 협조함)

010-5381-141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청양I.C인근(대전,세종 30~40분거리)
- 법당 : 콘테이너(삼존불,각단탱화)확장가능
- 요사 : 약20평(방사2,주방,해우소,창고)
- 실사용토지 : 대지+전 약600여평

※각종집기 및 가전일체 구비,몸만 오셔도 가능 개인선방이나 명상,작업실 적합. 건물만 매매

- 가액 : 답사및 상담후 절충

010-3977-2123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 (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경남 양산시 주남동 701-10번지
- 2층주택 : 대지 200㎡,1층 100㎡, 2층 64.26㎡,삼존불,천수천안불
- 가액 2억 1천만원,도시가스
- 법사님,보살님,기도성불 이루지 못한분, 꼭 필요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원효스님이 주석하신 천성산의 명당자리를 내어드립니다.

010-2647-5532
055-364-5532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청양I.C인근(대전,세종 30~40분거리)
- 법당 : 콘테이너(삼존불,각단탱화)확장가능
- 요사 : 약20평(방사2,주방,해우소,창고)
- 실사용토지 : 대지+전 약600여평

※각종집기 및 가전일체 구비,몸만 오셔도 가능 개인선방이나 명상,작업실 적합. 건물만 매매

- 가액 : 답사및 상담후 절충

010-3977-2123

사찰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55-238-6772
010-9422-123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에서 20분 거리
- 사찰 총 500평. 종교부지 350평. 임 150평. 법당 20평(원통 보전). 요사채 3동
-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 넓음
- 도량 내 많은 나무와 잔디로 조경
- 스님 타계로 급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430-467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 3층 건물 중 2층 전체
-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1천 / 월세 1백만원
-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2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서울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남부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서향 코너
- 보 500 / 월 50 권리금, 부가세 없음
- 특이사항(건물주가 거주하면서 협조함)

010-5381-141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청양I.C인근(대전,세종 30~40분거리)
- 법당 : 콘테이너(삼존불,각단탱화)확장가능
- 요사 : 약20평(방사2,주방,해우소,창고)
- 실사용토지 : 대지+전 약600여평

※각종집기 및 가전일체 구비,몸만 오셔도 가능 개인선방이나 명상,작업실 적합. 건물만 매매

- 가액 : 답사및 상담후 절충

010-3977-2123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 (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경남 양산시 주남동 701-10번지
- 2층주택 : 대지 200㎡,1층 100㎡, 2층 64.26㎡,삼존불,천수천안불
- 가액 2억 1천만원,도시가스
- 법사님,보살님,기도성불 이루지 못한분, 꼭 필요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원효스님이 주석하신 천성산의 명당자리를 내어드립니다.

010-2647-5532
055-364-5532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청양I.C인근(대전,세종 30~40분거리)
- 법당 : 콘테이너(삼존불,각단탱화)확장가능
- 요사 : 약20평(방사2,주방,해우소,창고)
- 실사용토지 : 대지+전 약600여평

※각종집기 및 가전일체 구비,몸만 오셔도 가능 개인선방이나 명상,작업실 적합. 건물만 매매

- 가액 : 답사및 상담후 절충

010-3977-2123

사찰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이주 베트남인 구심점 '사찰'

카나가와현 '쭈어 비엣남 사원' 이민자 위로

조우인 객원기자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외국인 공동체인 베트남인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이주민간의 유대를 이어나가고 있어 화제다. 9월 9일 일본의 '교도통신' 은 영문판을 통해 베트남 이주민들과 불교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도쿄 남쪽에 위치한 카나가와현, 아이카와 마을에 소재한 '쭈어 비엣남(Chua Vietnam)' 은 베트남 이주 공동체가 세운 베트남불교 사찰이다. 2012년 완공된 쭈어 비엣남 사원은 붉은 유리기와에 황금빛 용으로 장식한 베트남 전통사찰의 외관으로 지어졌다.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 수십 명의 베트남 신도들이 참석하고, 큰 법회나 특별한 날에는 수 백 명의 이주민들이 모인다. 이들 중 일부는 일부러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월남에서 보트피플로 탈출한 난민들도 이 사찰을 찾아온다.

카나가와 현에서 기술연수생으로 거주중인 우티 트랑 씨는 "절에 오면 베트남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항상 즐겁다. 바쁜 일상 속에 쉴 수 있는 장소"라고 기쁘게 말했다. 트랑 씨와 함께 법회에 참석한 응우옌 둥히우 씨도 "절에 오면 직장의 스트레스를 떠날 수 있다"며 트랑 씨의 말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다른 베트남 이주민들의 소개를 통해 사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주지를 맡고 있는 누한 안 스님은 "불교는 베트남의 주요 종교로 언제나 베트남 인들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12%가 불교도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베트남 전통양식 건립
정기법회에만 수십 명씩 몰려
월남 보트피플 난민도 찾아와
330만 베트남인 위한 공동체

스님은 "베트남 노동이민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고향을 그리는 등의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사원이 그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난 베트남 2세들이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 내적갈등은 물론, 일본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이주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일본 내 베트남 사찰 쭈어 비엣남. 사진출처=교도통신

누한 안 스님은 "젊은이들이 사원을 찾고 다른 베트남인들과 만나 베트남어를 연습하면서 자신들의 뿌리인 베트남 문화를 접하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베트남 불교와 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곳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 SNS 등을 운영하면서 젊은 신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전쟁 말, 월남에서 망명한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도 이 사찰을 찾아 향수를 달래고 있다. 월남에서 경찰로 일하다 탈출한 한 난민은 현재 일본으로 귀화해 타케후미라는 일본이름을 쓰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원을 찾았다.

타케후미 씨는 "쭈어 비엣남 사원이 세워지기 전엔 일본사찰을 빌려 법회를 모셨다. 다른 국가 이주민들에 비해 일본에 베트남인들이 모일 장소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전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330만 명이 넘지만 베트남 불교사찰은 단 10여 곳뿐이다.

타케후미 씨는 "3명의 아들 중 오직 장남만이 어설픈 베트남어를 구사한다. 자식들의 뿌리가 베트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정기법회는 물론, 베트남 전통축제에 항상 참가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수많은 문화들이 융합되는 가운데, 불교를 통해 문화정체성을 지키는 베트남 이주 공동체의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울트라맨 부처님' 불교 모욕인가

태국서 학생 그림 논란… 문제없다는 반박도

불교신자가 대부분인 태국에서 일본 특수촬영물 캐릭터인 '울트라맨' 을 부처님으로 그린 그림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월 13일 '로이터 통신' '타이비자 뉴스' 등 해외 언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수 불교계에서는 '불교 모욕' 이라는 입장을, 일각에서는 작가 의도를 보라는 반박의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9월 10일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 주(州)에 소재한 쇼핑몰에서 모 미대 소속 학생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 중 한 여학생이 출품한 4점의 그림이 도마에 올랐다. 그림은 일본의 특촬 드라마 캐릭터인 울트라맨의 몸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등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묘사됐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인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평화를 유지하는 울트라맨과 같은 영웅으로서 부처님을 보여주고 싶다"고 작품 의도를 전했다.

이 그림들이 SNS에 퍼지면서 보수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태국 문화장관 이띠뽄 꾼쁠렘 장관은 "창작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에 대한 조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학생은 결국 주지사의 참관 하에 주의 최고위 스님 앞에서 공개 참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불교단체는 그림을 그린 학생과 전시회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태국에서는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최고 징역 7년형이 주어진다.


문제가 된 4점의 그림 중 하나. 부처님이 울트라맨으로 묘사됐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반면 작가 의도를 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태국의 유명 미술가 찰렘차이 코싯삐빳은 "이러한 논란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영웅의 몸과 얼굴로 부처를 표현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작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국 중부에 위치한 사찰 왓 쑤안 까에우는 사찰의 명의로 "이 그림은 불교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학생이 잘 알고 있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로 부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지지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무인사찰서 도난된 불상 환지본처

와카야마현 케조지 본존불
경찰 수사서 용의자 체포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빈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선 최근 성보 도난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보시금이나 불구는 물론 본존불마저 도난을 당하고 있다. 반면 도난된 본존불을 무사히 되찾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9월 9일 일본의 '기이민보' '아사히신문' '라이브도어 뉴스' 등의 매체들은 올해 초 도난당한 불상을 되찾은 한 사찰의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일본 간사이 지방의 와카야마(和歌山)현 타나베(田辺)시에 소재한 사찰 케조지(華蔵寺). 도난당했던 석가여래좌상은 좌대에 1421년에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역신앙과 불교미술사에 중요한 불상으로 현립박물관의 특별전에 전시된 적도 있는 문화재급 불상이다.


반환된 불상을 다시 불단에 모시는 사부대중.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이런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케조지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임에도 인근 타 사찰의 주지스님이 해당 사찰의 주지를 겸임하고 있는 무인 사찰이다.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상황이 약 반세기 가량 이어져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존불은 올해 2월경에 도난당한 것을 주지인 쿠키 세이죠 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CTV 등의 보안장치가 없는 무인 사찰에서 불상의 행방이나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와카야마현 경찰은 별도의 절도사건 용의자였던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불상은 보통 고미술상 사이에서 거래되기에 되찾기가 어렵다. 이번처럼 매각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남성은 지인인 고미술상과 모의하여 불상을 케조지에서 탈취,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택에서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의한 고미술상이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로 밝혀져 한 번 더 충격을 줬다.

경찰은 9월 7일 공식적으로 케조지에 불상을 반환했다. 주지인 세이죠 스님과 30명의 신도들이 함께 불상을 모시고 봉안식을 봉행했다. 세이죠 스님은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주신 부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매우 기쁘면서 안도감이 든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봉안식에 참여한 오코치 토모 와카야마 현립박물관 학예사는 "재도난 방지를 위해 사찰과 협의 후 3D프린터를 이용, 동일한 불상을 제작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어 朱印, 일본서 인기몰이

티베트 출가 일본 스님, '주인열풍' 중심에

관음성지로 유명한 일본의 천년고찰 엔교지(圓教寺). 최근 이 절의 명물이 생겨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11일 일본 '코베신문' 은 엔교지에 붉은 옷의 티베트 스님이 써주는 티베트어 주인(朱印)이 화제라고 보도했다.

주인을 써주는 스님은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일본인 오쿠다 츠요시 스님. 오쿠다 스님은 2001년 티베트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싸꺄파에서 꾼가땐빠라는 법명으로 출가했다.

이후 남인도에 소재한 2곳의 티베트 사찰에서 13년간의 전통강원 체계와 엄격한 시험을 거쳐 2015년에 일본인 최초의 켄뽀(한국의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쿠다 스님은 "네팔에 있는 티베트어 학교를 다니던 중 인도에서 온 티베트 스님으로부터 '우리 절에 놀러오라' 라고 권유 받은 것이 출가의 계기였다"며 웃어 보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인도의 종사르 사원에 갔다가 그곳의 스님에게 "티베트 불교엔 일본에 전해지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서 수학을 시작, 4년째 되던 해에 출가했다.

오쿠다 스님은 "출가한 이상 부지런히 정진하자는 마음으로 켄뽀학위까지 취득하게 됐다. 켄뽀가 된 그 해 일본에 귀국해 인도에서 배운 소중한 불법을 어떻게 회향하면 좋을지 고민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마침 지역사찰에서 주지를 지내는 일본인 도반의 소개로 이듬해 엔교지에 머무르게 됐다. 당시 엔교지 스님의 권유를 받아 티베트어 주인이 탄생하게 됐다.

오쿠다 스님이 써주는 주인에는 티베트어 필기체로 엔교지의 이름과 참배일시 등이 쓰여 있다. 티베트어로 된 주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주인 수집 열풍을 타고 조금씩 퍼졌다. 많을 때엔 하루 300명 이상의 참배자들이 주인을 받아갔다. 박영빈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글쓰기로 떠나는 심리적 출가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⑱ 습관 살피기와 부모공부

내 습관, 현미경으로 살피기

내가 무심코 하는 언행(言行)은 대체로 '역사와 전통' 이 있다. 노트북을 타이핑할 때 새끼손가락을 절대 쓰지 않거나,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부터 집어넣기, 젓가락이나 펜을 잡는 위치까지. 이런 동작은 아무리 서둘러도 별로 오차가 없다.

습관은 자신의 무의식이 토스트 기계에서 부지불식간에 튕겨 올라온 식빵 같은 사건이다. 내 안의 '게릴라' 처럼 내면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행동이다. 생명의 최초 메커니즘인 호흡조차도 게릴라처럼 몰래몰래 자동적 · 습관적으로 출몰한다. 습관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밤늦은 맥주집에는 술꾼들의 언어 습관, 술 습관, 몸 습관, 생각 습관, 감정 습관들이 난무한다. 순수 무의식의 향연이다. 그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똑 같은 반응을 반복하고, 같은 잔에 같은 자세로 같은 양의 술을 따라서 같은 순간에 잔을 부딪치곤 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개발한 독일의 심리학자 퍼얼스는 '인간의 무의식은 물에 떠있는 비치볼처럼 100% 드러나 있다' 고 말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정교한 기계처럼 자동화돼 있고 습관적으로 굴러가는 물질이며, 이미 내면의 무의식이 일상의 언행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적 · 습관적 행위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참고로, 사람이 100%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동물 차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일까. 퍼얼스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처방책을 내놓는다. '알아차림(awareness)' 이라는 심리기제가 그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주좌와(行住坐臥)를 '알아차림' 할 때 신경증적 삶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격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 MBSR(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로 유명한 존 카밧진도 명상에 대하여 '탈 자동화 하는 것' '탈 습관화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내 습관, 현미경으로 살피기' 는 이처럼 습관화되고 기계화된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문자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신의 하루 중에서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켯속에 배어있는 온갖 습관을 스스로 드러내보자는 제안이다. 습관을 '자각(알아차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거나 적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번 깨알같이 적어보자.

- 아침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행했던 자신의 언행, 깨알적기

- 생애 거의 모든 순간에 발동하는 자신의 습관들, 세세히 적어보기

- 몸, 언어, 감정, 생각, 음식, 대화, 시간관리, 잠 등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적어보기

- 일상 속에서 마음이 주로 어디 혹은, 누구에게 가 있는지, 마음의 움직임 발견하기

'내 습관, 현미경으로 살피기' 는 '명상' 에 가까운 행위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자신이 주로 취하는 태도를 떠올려 적어보는 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 잠에서 덜 깬 몸을 일으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반복과 기계적 행위 패턴을 깨뜨려보고 싶지 않은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 하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시점이다. 동물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외부 자극에 거의 간극 없이 반응한다. 자연상태에서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으려 들고, 화가 나면 으르렁댄다. 인간은 이러한 습관체를 두고 '본능' 이라는 표현으로 종(種)의 선을 긋는다. '본능' 과 '습관' 의 차이가 보이는가. 소위, '의미치료' 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정의를 내린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인간은 그 공간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공간은 일종의 자극과 반응의 완충 지대다. 이것을 두고 재기발랄한 심리학자들은 '반응 유연성' , '반응 탄력성' 이라는 심리용어를 달아준다. 누군가 당신에게 '바보새끼!' 라고 했다 치자. 당신은 이때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분노심을 지켜볼 것인가. 당신이 후자 쪽이었다면, 그것은 즉각 반응하려는 충동의 주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지켜봄으로써, 의미있는 공간 확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늘 반복되는 특정 언행 · 행동
알아차릴 때 벗어날 수 있다
부모와 나 빗대 과거 돌아보며
마음의 자립능력 강화시키자

내가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하나를 꼼꼼히 주시하며 적어보는 일. 그 일은 곧 자동화, 기계화, 습관화된 나의 삶을 어루만지며 사랑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부모와 나의 닮은 점, 다른 점

사람에게 부모란 무엇일까. 나를 낳아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신 분이라는 식의 관념 발언 생략하고, 곰곰이 되물어보자. 나에게 부모는 뭔가.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은유를 활용해도 좋다. 강물 같은 존재? 설악산? 바다? 사자? 생각나는 단어 위에 부모의 실루엣을 겹쳐보면 잘 맞는 옷 같을 때도 있다. 때로는 이런 의문에 붙들리기도 한다. '왜, 단도직입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 가령,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 삼촌, 누구 아들, 누구 동생, 누구 남편…' 하면서 나열이라도 할 수 있으련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는 한때 내 생명의 원천이었다. 우주 자체였고 지붕이었으며, 천둥 번개 속에서도 아늑하고 따스한 둥지였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밀월의 기억은 지우다만 연필자국처럼 희미하다. 내 욕망의 첫 파괴자, 내 분노의 첫 촉진자, 생애 최초의 좌절 유발자, 오염된 사랑의 첫 수혈자,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가르치면서도 그러한 줄 모르는 무지몽매자.

당신도 그러한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말이다. 없는 셈 치자니 억울한가? 이제 와서 차마 그 옛적 상처들을 들이대는 것이 민망하여 슬그머니 놔버리고 싶지만, 아주 없는 것으로 돌리기에는 내 안팎에 새겨진 상처들이 쉬 나아지지 않는 걸 어떡하나. 생애 첫 줄에 피딱지로 엉겨 붙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처럼 내 생애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이 그림자를 어떡하나. 세월이 흘러 이제 나 또한 그 당시 부모만큼 낡고 곰삭은 몸이 됐지만, 내 아이에 대한 자기변명은 뻔뻔해지고 부모에 대한 용서값은 언제나 생애 이전으로 원위치 할는지.

그런데 웬걸! 이런 사연은 삶의 반전일까 아니면, 자연스런 회전일까. 작년에 아흔 살이 되신 어머니는 요즘 들어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심심찮게 꺼내곤 하신다. 외조부 얘기를 꺼내는 어머니의 표정은 '아빠 자랑하는 어린 딸' 의 살짝 상기된 느낌이기도 하고, 진한 비아냥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구순 노인네의 쪼글쪼글한 볼에 피어나는 분홍 미소는 나의 외조부를 지금 옆 자리에 모셔놓은 것처럼 애틋하기도 하다. 나는 그 표정과 언어에서 젖먹이처럼 투명해진 생명을 보는 듯하다. 각도만 잘 맞추면 성게나 고동 따위가 들여다보이는 맑은 바다처럼 싱긋 웃고, 열없어 하고, 히히거리는 구순 노인네의 표정은, 발칙하고 통렬하다. 어머니의 영혼은 전에 없이 투명해졌고, 안팎으로 굴절이 없어졌다. 아, 당신은 다시 우주나 지붕, 아늑한 둥지, 그 어디쯤을 넘나들고 있나보다.

구순 노인네가 육순 초반에 타계하신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엊그제 벌어진 일처럼 실감나게 전개되는 그 이야기는 대부분 동어반복과 중언부언 투성이다. 나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동안 외조부 이야기가 거의 없었음을 기억한다. 뭐지? 어머니는 구순이 되어서야 당신의 부모공부를 시작하신 것일까. 당신의 '헌법 1조 1항' 을 이제야 꺼내드는 이유는 뭘까. 언제해도 해야 할 공부였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와 나의 닮은 점, 다른 점' 을 챙겨보자는 의도는 분명하다. 당신의 의식은 모든 순간 부모의 그림자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모와 외형이 닮아가는 것에서 당신의 부모는 자신을 기어이 드러낸다. 목소리가 닮거나, 마음 씀이 닮은 것으로 드러낸다. 순간적인 동작이나 얼굴 표정 전체에서 드러낸다.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유사해질 확률도 높다. 이 무슨 조화일까. 간단하다. 당신은 벗어나고 싶은 대상을 반복,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백곰 실험' 과도 유사한 원리다. 눈을 감고 '남극 대륙의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주문에 거듭 노출될수록 백곰을 빈번히 떠올리는 이치와 같다.

굳이 벗어날 의도가 없을 때, 당신의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벗어날 힘을 갖춘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나의 닮은 점, 다른 점' 을 드러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 공부' 다. 문자로 적어서 드러내는 것 자체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단이다.

-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장단점,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적어보기

- 당신이 딸이면 어머니와 나의 닮은 점 · 다른 점을, 아들이면 아버지와 나의 닮은 점 · 다른 점 적어보기

- 내 부모의 생김새, 말투, 태도, 습관, 잘 쓰는 말, 표정, 걸음걸이,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등을 하나하나 서술하기

- 무심코 하는 나의 말, 행위 등과 겹치는 부모의 말, 행위 등을 떠올려 적어보기

- 내가 흥분할 때 나오는 말과 부모가 흥분했을 때 나오는 말, 적어보기

나와 어머니가 닮았음을, 나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 아들의 음성과 그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어서 실수했다는 친구를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건 위험하다. 나와 부모, 어느 한 구석 닮은 데가 없다는 믿음은 곧 부모의 정신세계까지 답습하고야 말겠다는 반동적 속다짐일 수 있다.

부모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그늘로부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어렵다. 생애 첫 호흡과 먹이, 생애 첫 상처와 행복, 생애 첫 울음과 웃음, 생애 첫 기쁨과 두려움…. 이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환경이 어디 있을까. 부모는 오늘 당신과 생리적 연결고리로서 실존하는 게 아니다. 그는 오래전에 스쳐간 환상이다. 부모는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최초의 체험이 집중돼 있는 근본 조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부모와 나의 닮은 점, 다른 점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근본 조건을 벗어나 삶의 우주를 개척하러 떠나는 심리적 출가와 같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



대행 스님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그 뜻을 아시죠? 그리고 또 유마힐 거사가 내 중생부터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말, 그거는 내면의 여러분 생명들이 다 나아야, 병이 들지 않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며 화목하다 이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판단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도 화목해지고 모든 게 다 화목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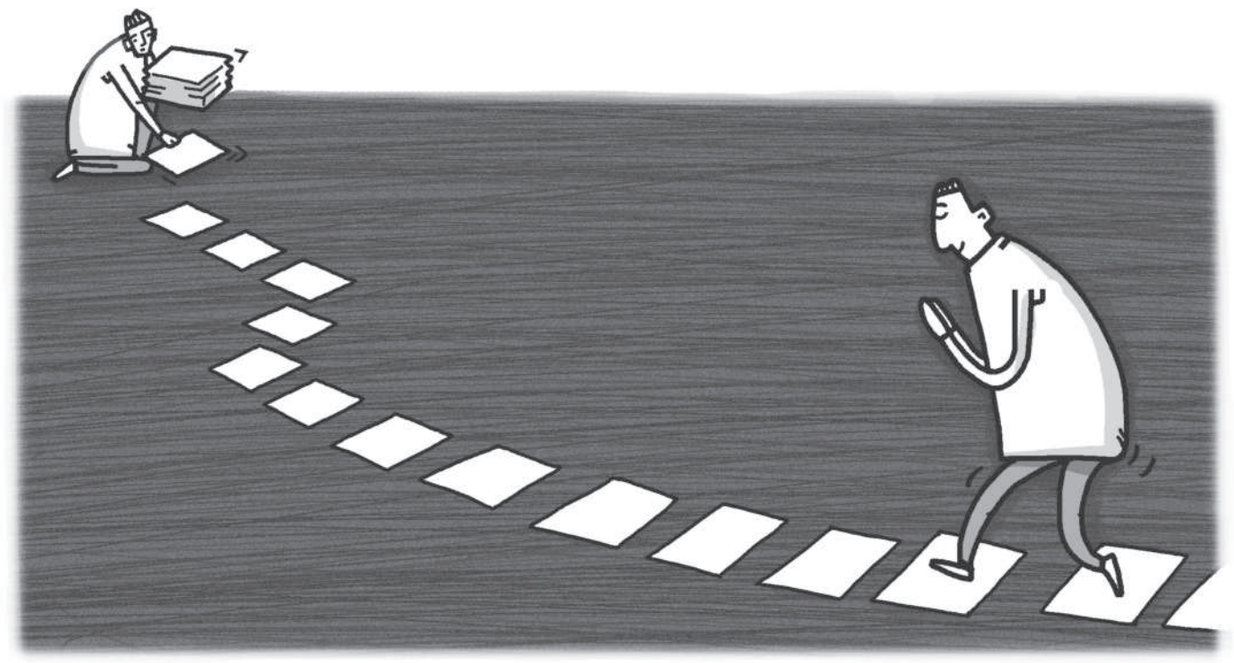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큰스님의 귀한 설법에 감사 올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 큰스님의 설법에 항상 감복하고 깨달은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 참선 혹은 관법에 대해서 몇 가지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관법을 잘 익히라고 하십니다. 일반 승가에서는 조주 선사의 '무' 자 화두나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경향에 비해서 스님께서는 오직 주인공만을 화두로 삼으라고 하심이 곧 생활 참선이요, 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을 믿고 일체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카세트테이프나 혹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설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카세트로 설법을 듣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매우 충실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그냥 뭐, 대충 듣기도 하고, 마음자리에 관하지 않고 건성건성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과 이렇게 귀한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 놓고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 큰스님께서 설하시기를 생명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주인공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의식이 그 설법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다른 의식들이 그 설법만큼은 어떤 감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큰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것이고 저렇게 생각했다면 저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된다.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카세트를 놓고 듣는 것은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얻고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지금 살림을 하고,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듣는 놈은 누구고 보는 놈은 누구고 하는 놈은 누구고, "아니다" 하는 놈은 누구고 "그렇다"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두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화두를 주면 그냥 마음으로 직결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화두를 줬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주셨다 이런다면 벌써 그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았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진짜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겉으로 화두가 끊어질까 봐 애를 쓰면서 쩔쩔매고 오히려 더 겉돌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서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화두가 겉돌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는 아예 하기 틀렸죠.

질문자2(남) 이렇게 좋은 날 먼 길을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큰스님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달마 조사께서는 280세, 단군 할아버지께서는 117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성자 바바지께서는 600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거주하는 성자들은 500세 이상을 생존해 계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스님,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만 심봉이 바로 서지 못해 정신세계의 맛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큰스님께서도 현 법체를 500세 이상 유지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부지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을지라도 한마음 내 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하이구! 우리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삼천 년 전의 석존이 되든 단군 할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한 여러분이 다시금 변장하고 다시 나온 것이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 하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옷을 빨아 입으려고 벗어 놓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갑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참, 형제같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님이 되고 한 사람은 사회에서 그냥 살았는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좋은 데로 천도나 좀 시켜 달라고 그 친구 스님을 불렀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에이, 오지나 않았으면 가지나 않을 것을….'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아니, 살지 않았으면 죽지나 않을 걸….' 하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그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본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실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허탈히 봐서는 안 됩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반드시 돈을 주고 물건값에 해당하는 거를 사 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줬다고 하며 또 그쪽에서는 내게 물건을 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받은 새가 없고 너도 나를 준 새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아주 빈틈이 없는 것이며 생활인 것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무시무종 이 자체가 바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느라고 걸어오셨겠죠? 그런데 누구를 봐도 발자국을 모아서 걸머지고 온 분 하나도 없네요?

질문자2(남) 큰스님, 오늘 설법 도중에 이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준비해 온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마음선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법당부터가 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고 장엄물이 적습니다. 또 관음재일 지장재일이니 하는 기도나 금강경 강의나 다른 경전 강의 하는 것을 못 봤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지요? 허허허…. 어머니가 둘 셋이라도 골치 아픈 일인데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 A18면으로 계속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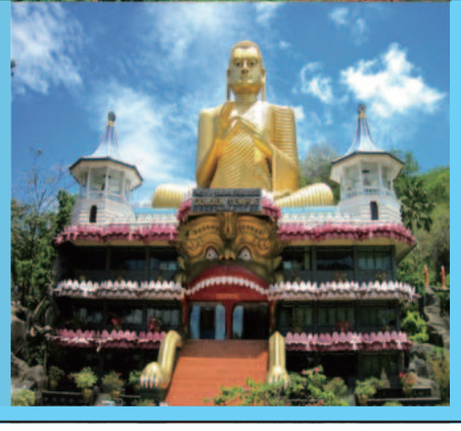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8대 성지순례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
-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남방불교의 핵심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
-콜롬보



4대 성지
중국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나라고 세울 게 하나도 없다

☞ A17면에서 계속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내면으로도 나 아님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을 것이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어떻게 둘입니까? 네?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마음 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죠? 하하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가죠?

질문자2(남) 우리 한마음선원 법당에는….

큰스님 네, 그래요! 참, 그렇군요. 하하하! 그래서 모두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가게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면 족하듯이 바로 부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수천수만 분이 깨쳤다 하더라도 평등공법 봉, 봉에 같이 모든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주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로 부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평등하다는 그 뜻으로 바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체 한 체가 여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자생 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바로 제도가 되면 그 여래 집 안의 여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깨치면 그냥 여래지요. 여래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따진다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같이 맞물려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세계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북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오분향 설명을 하실 때에 스님과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오늘 스님 법문 자락을 붙들고 좀 더 정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봉정암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길인데다가 듣기로는 일곱 시간이 걸린다, 뭐, 너무 힘들다, 깔딱 고개가 어떻다 이래서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가는 거 아니냐. 주인공이 가자! 근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 축지법은 못 쓰더라도, 벌써 왔나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주인공이 해!' 이렇게 하고 백담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제 나름으로 의문이 생기길 '봉정암에 사리를 친견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는 아닐 거고 주인공이 가기는 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나름으로 의문을 삼았습니다.

7월 셋째 주 법회 때 스님께서 "제발 직코스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주인공! 직코스로 들어가자. 오늘 직코스로 들어가서 내가 봉정암 사리탑에 가면 사리를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인공이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직코스로 들어가자, 주인공!'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아직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축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져온 의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탁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마침 풀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 삼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모두 한마음 주인공이라면 너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닐 것이 아니냐, 주인공. 다람쥐 넌들 나하고 다르겠느냐. 한마음이라면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람쥐가 가다가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대고 '그래, 보여 줘. 정말로 한마음이라면 보여 줘.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다람쥐가 얼굴을 탁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 그래 고맙다. 가르쳐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다람쥐가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풀 하나라도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희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꼭 이와 같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스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봉정암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제 생각에 '정말 내 주인공에 관한 것이 직통으로 통했을까?' 하는 못 믿는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의 기회가 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큰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먹고 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또 됐습니다. 근데 작년 수박하고 올 수박하고 다릅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다르다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그 씨고 그 수박이 그 수박이니까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다 뒀고, 하하하…, 밥통은 어디 있고 똥통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묘하게 지구 밖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고 위로는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항상 찰나찰나 서로가 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린 작년이 따로 없고 올이 따로 없고 내년이 따로 없습니다. 모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화하고 또 변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 가며 살고 있습니다. 별성도 또 자기 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미래의 오늘에 오는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짐승의 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과 마음을,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그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삼천 년 전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 다오.' 그랬으니 그 다람쥐가 보였다 하더라도 살았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를 말입니다. 네?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람쥐가 움죽거리고 살았다는, 지금도 현적(顯跡)하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오늘 여기 오신 신도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실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깊은 감명 감동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나가면 그 행이 이루어지질 않고 저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지속적으로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그저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서 말을 한다고 그러실는지도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전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러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러셨어요.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달마 대사도 그 소리 했다고 약사발을 받고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본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약사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나무라면 뿌리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러니 나무 밑에 있는 뿌리한테 믿고 맡겨 놔라 이겁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해 주시오' 하면 벌써 둘이 돼요.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이런다면 금방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나투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관한다면 관세음이 돼 주고 신장이 돼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투어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자생 중생이 화해서 그렇게 보살의 나툼으로 응신이 돼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생활하는 데도 이익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딴 뿌리에다 들이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고 맡기세요.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지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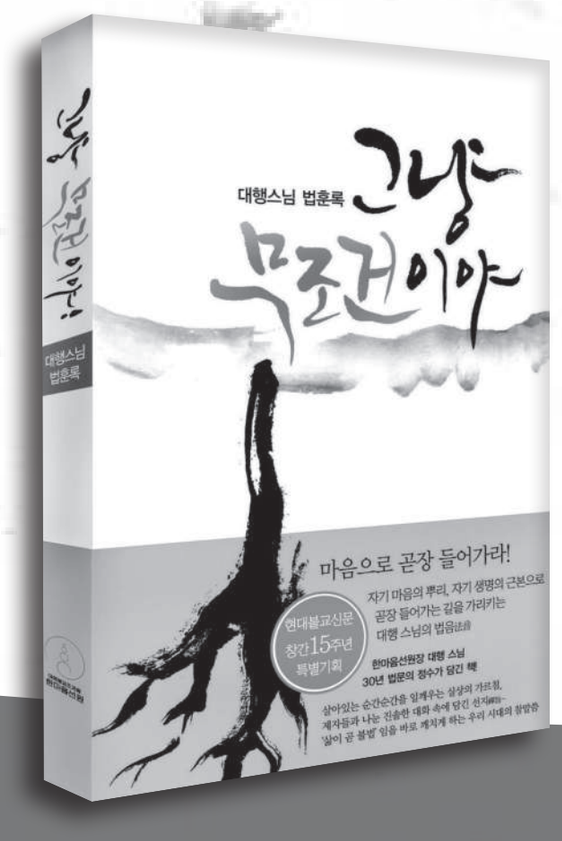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골수도 알 수가 있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잘못된 덕담 문화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상대방 언어습관 관찰 버릇 있어
그럴 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비판
'윤리학자'로써 일종의 직업병일까

불망어계 따르면 구업 4가지 분류
'욕 · 거짓말 · 이간질 · 아첨' 해당

불교계 덕담, 구업들로 점철 많아
대화가 선문답처럼 들려서는 곤란
우리의 언어습관 다시 생각해보길

누구에게나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유독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언어습관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읽은 책이 대부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의 가치 기준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아무데서나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도덕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다. 윤리학은 모든 사람에게 불보살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인간적 삶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주변에서 그럴듯한 말의 형식을 빌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고 당연한 결과지만 그들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그러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못마땅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동료와 선후배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나의 입바른 소리는 윤리적인 직업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불망어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입으로 짓는 악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남에게 사나운 말(惡口)을 해서는 안 된다. 육두문자를 오남용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슴에도 깊은 회한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거짓말(妄語)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기본전제가 되는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이간질을 불러올 수 있는 말은 특별히 삼가라고 하셨다. 화합중을 깨뜨리는 불화의 원인을 경계하신 것이다. 양설(兩舌)의 금지가 나온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의도를 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꾸밈말이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처럼 기어(綺語)를 남발하는 불자들은 이제 제발 자신의 구업짓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계에서 흔히 주고받는 덕담(德談)이라는 말이 사실은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입으로 짓는 잘못을 아주 교묘하게 배합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덕담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말이 도반이나 신자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덕담이 아니라 악구고 망어며 양설이고 기어에 지나지 않는다.

덕담은 그 취지대로 연초에 한 해 동안의 건승을 기원하는 인사말로써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우리 불교계의 언어문화는 솔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타락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질이 낮은 수준이다. 일상의 대화가 잔뜩 멋을 부린 무슨 선문답처럼 들려서는 곤란하다.

독일의 윤리철학자인 칸트는 우리에게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할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어떠한 외부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리켜 칸트는 선의지(善意志)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사했다.

덕담문화의 만연이 역설적으로 칸트의 선의지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은 불망어계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언어습관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싶다.



마음산책

냉소 아닌 '열린 가슴'을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아빠는 항상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이야. 김 씨는 무슨 일이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법이 없었다. 뭔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비판하곤 했다.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인생에서, 그러고 보니 항상 뭔가 꼬였다. 잘 되려고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곤 했다. 특히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 번 옮긴 직장에서 편안한 상사나 동료가 없었다. 꼭 누군가는 김 씨를 힘들게 했다. 이번에도 꼭 승진할 줄 알았는데 탈락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상사들을 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분노가 가시지 않아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배우게 되었다. 불교의 인과법도 배웠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항상 비판적이니 바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명상을 하며 그 비판적인 마음을 들어다 보려고 했다. 힘들어도 꾸준히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뜻밖에도 거기엔 아픔이 있었다. 자존심이 상해 인정하기가 싫었지만,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형보다 못하고, 뜻대로 성적도 안 나오고, 집도 잘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싫었다.

이내 '나도 못하는데, 잘 될 리가 없겠지. 남이라고 다를 리가 있겠나' 하는 차가운 마음이 생겼다. 김 씨는 자기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한다. 막상 자기 마음을 만나고 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조심하게 되었다. 비판이 나오려고 하면, 내면의 마음에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 "꼬이는 인생을 바로 펴고 싶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보고 싶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오토 샤머 교수는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며 '열린 가슴'을 방해하는 요소로 '냉소의 목소리'를 들었다. 냉소는 '잘 될 리가 있겠어. 변할 리가 없다'라는 차가운 마음이다. 찬물을 끼얹는 마음이며 자신은 물론, 남들의 열정과 노력을 얼어붙게 만든다. 냉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라고도 볼 수 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차원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도 용기가 없는 것이다. 습관이란 그렇게 무섭다.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한걸음 떼기가 너무나 무겁다. 마음을 있는 대로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자기의 아픔 속에서 굳어져, 그것을 넘어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있을 뿐, 습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업은 본래 공해서 붙을 게 없으니, 일체는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고 한 법문이 떠오른다. 힘들다고 생각될 때, 그 마음을 내면에 내려놓으면 된다. 놓는 순간, 내가 아니라 내면의 보살의 마음과 통한다.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놓아가는 것이 아상을 녹이는 길이고, 정진하는 길이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한가.

社 說

새로운 대학 신행프로그램 필요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2개월간 진행한 불교동아리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놀랍다. 흔히 불교동아리 하면 대학생 불자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중 절반 가량이 무종교임이 드러난 것이다.

약 40%가 무종교에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며 불교신자가 됐다는 이들이 전체의 20%에 달하니 사실상 60%가량이 불자가 아닌 상태에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셈이다.

현재 불자가 아닌 동아리 회원 중 60%가 역시 불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대학포교에서 불교동아리가 얼마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동아리 회원들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행프로그램과 문화활동 개발이 첫 순위로 꼽혔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시간에 맞는 신행문화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관, 카페 등에서 공부하며 틈틈이 불교명상을 하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등의 새로운 불교신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교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도 꼽혔다.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쌓기가 필요하다. 불교 활동을 통해 이러한 스펙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교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들의 니즈는 어느 정도 파악됐다. 이들의 의견을 통해 일반대학생들의 니즈도 유추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사회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대학생들의 새로운 신행문화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불교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명상 한류'를 기대한다

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교를 넘어 국내 내로라하는 명상가들이 뭉친 한국명상총협회가 본격적인 대중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서울 강남구가 개최하는 '2019 강남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강남한류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다. 10월 5일 완연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날, 강남구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의 명소 가로수길에서는 참선과 요가명상, 피트니스명상, 선무도명상 등 다양한 명상의 장이 펼쳐진다.

한국명상총협회는 앞서 8월 29~31일 서울 동국대에서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을 비롯해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과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조효남 서울불교대학원 석좌교수 등이 나와 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행사가 어느 정도 명상에 관심 있거나 수행해온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페스티벌은 명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 무엇인지 알리는 자리다.

명상열풍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기획설계자인 '킴킴'도 지난 명상포럼 대중강연서 과학기술이 선물한 여분의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처럼 조만간 인간은 지금보다 늘어난 여유 시간을 영성의 길에 쓸 것인지, 낭비해 멸망의 길에 쓸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명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면 이번 명상 페스티벌에 가보자. 자신의 미래를 뚜렷하게 설계할 순 없어도 나침반을 볼 정도의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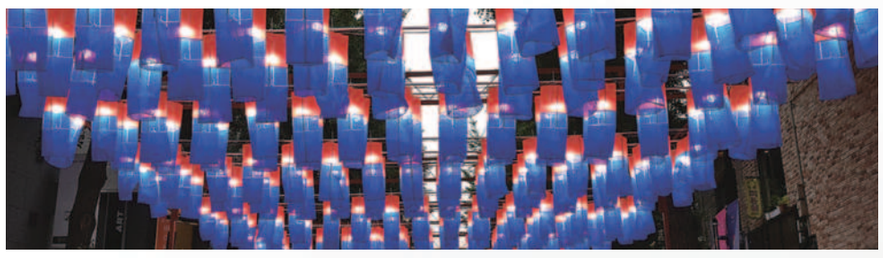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학문 · 수행, 구법하는 마음으로 정진”



테마人 권탄준 원장(70)
대행선연구원 · 금강대 명예교수

글=신성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대방광’은 진리, ‘화엄’은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화엄경〉은 선재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구한다. 그는 구도의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해 입법계의 뜻을 이뤘다. 선재동자는 가장 모범적인 구도자이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하다. 그의 구법 원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대행선 연구, 불교학 지평 확장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금강대 명예교수)은 학문과 수행에서 높은 구법 원력을 보여준 화엄학자다.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지난 8월 임명 · 취임했다.

9월 21일 대행선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권탄준 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원력과 정성으로 연구 불사에 임할 것을 밝혔다.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창립된 대행선연구원은 지금까지 5차례의 계절발표회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불교학계에서는 생소한 분야였던 대행선에 대한 객관적 담론의 장이 마련돼 관련 연구 ·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대행선에 대한 학술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상을 학술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집안의 모든 일은 정성과 원력으로 하는 법이라고 했으니, 정성과 원력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장 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권탄준 원장은 약 17년 전 청도 운문사에서 인사한 것이 대행 선사와 인연의 전부였다. 본격적인 인연은 〈현대불교신문〉에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 연재를 하며 대행선사 지상 법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접하며 시작됐다. 처음에는 ‘비구니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하셨나’라는 생각으로 읽었지만 이내 스님을 존경하게 됐다.

“수십 년간 불교서적을 보아왔으니 일반인보다 조금 더 이해가 빨랐죠. 난해하지 않은 평이한 선사의 법문들을 읽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지식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

대행 선사와의 짧은 만남은 이제 대행선연구원장이라는 큰 인연으로 이어졌다. 앞서 권탄준 원장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강렬한 만남이 있었다. 바로 선지식과의 만남이었다. 그 선지식은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이다.

본래 권탄준 원장은 경북지역 축구 명문 춘양중학교에서 축구부 주장으로 센터포워드를 맡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당시 권탄준 원장은 축구에 인생을 걸었고, 고등학교 역시 축구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권탄준 원장을 원하는 고교 축구부는 없었고, 고교 입시에 실패하게 됐다. 선수 생활을 하느라 학업을 게을리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해 2월 중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49재를 지내기 위해 문경 김룡사에 가게 됐다. 그곳에는 성철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49재에 나이 어린 학생이 오는 것이 의아했는지 성철 스님은 시자 스님에게 누구인지를 물었고, 시자는 “고교 입시에 낙방해 집에서 놀고 있다”고 답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철 스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성철 스님은 권탄준 원장에게 이 같이 불호령을 내렸다.

“못난 놈, 불알을 떼어 내삐리라.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되어가지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으면서 자기 앞길도 못 닦는 주제에, 죽은 너의 할머니 극락길을 닦아준다고 왔나? 너는 49재를 지낼 자격이 없으니, 49재에 참석하지 말고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삼천 배를 하라.”

그렇게 시작한 삼천 배가 잘 될 리 없었다. 절을 할 때마다 스님에 대한 원망이 욕설과 함께 나왔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결국 소년 권탄준은 성철 스님에게 찾아가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지금 너 집에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갈 테냐”고 물었다. 겁이 덜컥 난 권탄준 원장은 다시 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회향날 철야기도까지 마무리한 권탄준 원장을 성철 스님은 칭찬하며 짧은 법문을 설했다.

대행선 연구로 인생 2막
8월 대행선연구원 2대 원장 취임
〈한마음연구〉 등재지 추진 과제
“‘대행선’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원력과 정성으로 연구 불사 매진

불교는 내 운명
유망 축구 선수였지만 진학 실패
할머니 49재서 성철 스님과 만남
“재 참석 말고 절 올려라” 질책해
이후 불교에 심취… 행자 생활도

“사람들이 흔히 ‘죽도록 해보았지만 안 되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도록 해보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을 떼어놓고 죽도록 하면, 공부든 사업이든 도 닦는 일이든 어떠한 일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 때에는 ‘그렇게 힘든 절도 일주일이나 해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며 분심을 내어라.”

집에 돌아온 권탄준 원장은 공부에 매진했다. 독을 품고 공부하니 잠도 오지 않았다. 오로지 ‘공부하다 죽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했다. 집중해서 공부하니 책의 내용이 머리에 저절로 들어왔다. 그러기를 몇 달, 권탄준 원장은 서울 명문 경복고등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공부의 기초도 없던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철 스님께서 가혹하게 절을 시켜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 철야정진이라는 특별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목숨을 걸고 죽도록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토요가하시 가는 길
B5 문화 —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B6 학술 — 대행선硏, ‘대행 선사 계행 · 교화행’ 계절발표회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가진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권탄준 원장.



2015년 열린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에서 권탄준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강대 주최 한 · 중 · 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탄준 원장.

"보현행원, 화엄 핵심"… 韓불교 실천 나서야

권탄준 원장은?

1950년 출생. 중학교 시절 축구선수였지만 감독들 눈에 들지 못하고 결국 고교 입시에 낙방했다. 할머니 49재를 위해 들린 문경 김룡사에서 성철 스님과 만나서 7일간 매일 삼천배를 하며 인생이 변했다. 2년여 행자 생활을 했던 그는 197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이후 화엄을 전공하는 불교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을 거쳐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2003년 금강대 불교학부로 자리를 옮겨 교편을 잡은 그는 대학원장, 불교문화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2015년 정년퇴임했으며, 현재는 금강대 명예교수이다. 지난 8월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권탄준 원장' B1면에서 계속

화엄학자로 살아가다

화엄 전공, 성철 스님 주신 화두
"中화엄, 철학적 측면이 강하지만
한반도 '해동화엄', 실천행 강조해"
대행선사 한마음주인공 사상과 상통

한국불교학계에 대한 단상들

금강대 HK 교수 징계 안타까워
인물 연구, 일회성 그쳐선 안돼
불교, 이론 · 구호 아닌 실천 필요

그렇게 진학한 고등학교였지만 수업보다는 불교에만 관심이 갔다. 고등학생 당시 권탄준 원장의 별명은 '도사' 였다. 실제 그는 진짜 '도인' 이 되고 싶었다. 성철 스님을 찾아가 출가시켜달라고 졸랐으나 스님은 "요즘 세상에는 중도 대학을 나와야 하니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오라"고 거절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태백산 각화사에서 2년여 간 행자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만난 수좌 휴암 스님도 그에게 대학 입학을 권했고, 권탄준 원장은 197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화엄에서 길을 찾다

권탄준 원장은 동국대 입학 직후 성철 스님을 찾았다. 무슨 공부를 할 건지를 묻기 위해서다. 그의 질문에 성철 스님은 "교(敎)를 하려면 화엄을 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엄의 근본은 보현행원"이라고 했다. '화엄' 과 '보현행원' 은 권탄준 원장의 평생 연구 과제이자 화두가 됐다.

권탄준 원장은 화엄의 근본 정신은 철학적 교리가 아닌 실천행에 있다고 봤다.

"화엄(華嚴)은 '꽃으로서 부처님을 장엄한다' 는 의미인데 구체적 의미는 아름다운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여러 보살행을 실천해 스스로 부처님의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참생명을 일깨우는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꽃피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권탄준 원장은 중국화엄과 한반도의 해동화엄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중국화엄은 철학적 · 이론적 ·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사상이라고 하면 관념철학이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 같은 성격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 〈화엄경〉이 전래된 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철학적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성립한 종파불교가 종학(宗學)의 사상 체계를 수립하면서 화엄사상이 정리된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해동화엄은 다르다는 게 권탄준 원장의 주장이다. 해동화엄은 관념 철학이 아닌 실천운동이라는 것이다.

"해동화엄의 초조인 의상 스님은 화엄사상의 이론 체계 구축보다는 화엄사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성격에 주목해 수행과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해동화엄의 실천적 성격이 꾸준히 이어지게 된 것이죠. 중국화엄이 부처님을 철학적 측면에서 파악 ·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해동화엄은 부처님을 인격적 측면으로 접근해 자신을 동화하려고 합니다."

학문도 수행도 '실천행'

그는 한국불교가 '실천' 이라는 덕목이 부족하다고 봤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올바른 법을 배우고 법을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살라"는 것이었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부처님 말씀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에게 불교는 실천이다. 학문도 수행도 마찬가지다. 권탄준 원장은 스스로 해이해졌다 싶으면 혼자 또는 부인과 함께 삼천배 수련을 한다. 또한 금강대 개교 때부터 봄 · 가을 학기에 한 번씩 삼천배 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학회장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불교학의 실천적 과제들을 다뤄왔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불교학회장을 맡아 △화엄사상과 실천 △불교와 세계종교 △퇴옹 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 한국사회 주제의 학술대회 개최를 이끌었다.

"학문은 이론과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지성들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금강대 소식에는 안타까워했다. 금강대의 인문한국(HK)를 이끌었던 중진학자들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불교문화연구원이 발행하는 〈불교학리뷰〉에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연구원을 인물 연구 모범으로

이야기는 불교계의 인물 연구로 넘어갔다. 최근 불교계는 문도를 중심으로 한 인물 선양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권탄준 원장은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계승하는 불교의 특성상 인물 연구는 중요한 연구 주제임은 분명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찰과 문도에서 선지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양 행사를 위해서 이뤄지는 일회성 학술대회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선원이 창립한 대행선연구원은 불교계 인물 연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계절발표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선 연구는 이제 권탄준 원장의 연구 주제가 됐다. 그는 화엄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 사상이 상통한다고 봤다.

"스스로의 본성을 보살행을 통해 일깨우는 화엄과 수행과 실천을 강조한 한마음선원의 주인공 · 오공 사상들은 서로 맞닿습니다. 그래서 화엄과 대행사상의 상통점을 연구해 관련 논문을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제 백발의 노학자는 회향을 준비 중이다. 그 회향은 대행선 연구를 통해 이뤄지려고 한다.

"우선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를 등재지로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행선의 본질적 성격과 정체성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행 사상의 핵심을 불자나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보대사 함께 하는 '同行二人' 순례길

〈동행이인〉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㉙ 토요가하시 가는 길

밤새 차가워진 산속의 공기는 새벽이 되자 몸이 으슬으슬할 정도로 떨어졌다. 방한 대책으로 몇 없는 옷을 껴입고, 판초우비로 침낭을 감쌌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막기 어려웠다. 몇 번을 몸을 뒤척이다 까무룩 잠에 들었다가 먼 새벽동이 틀 무렵 일찌감치 자리를 정리했다. 최대한 몸을 크게 움직여 밤새 굳은 몸을 풀며 부스럭거리고 있으려니, 홋카이도 팀의 텐트에서도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텐트 안에서 아직은 잠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온다.

"박상 잘 잤어? 안 얼어 죽었지?"

"살아있어요! 아직 대사님이 올 때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서로 농담을 하며 시작하는 아침, 홋카이도 팀도 간밤에 꽤나 추웠다며 손으로 온몸을 문지르면서 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들 여기저기 몸이 굳은 채로 손만 놀리는데, 한창 텐트를 해체하던 오바 씨가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다들 하늘 좀 봐! 무지개가 떴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옅은 아침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어려 있었다. 정확히는 무지개 구름이었다. 마침 딱 우리가 노숙을 한 그 자리 바로 위로 구름이 뜬 것이다. 코에이씨와 나는 바로 손을 모으곤 기도를 했다.

"채운(彩雲, 상서로운 구름)이라니! 아침부터 길상하네!"

"뭔가 부처님이 돌보시는 느낌이네요."

시코쿠 순례처들을 돌다보면, 각 사찰의 연기설화를 자주 보게 된다. 그 중에 흔하게 보이는 내용이 '코보대사가 이곳에 오셨다가, 상서로운 구름(紫雲)을 보곤 이곳이 불연이 깊은 땅임을 알고서 가람을 세웠다' 내지는 그 '상서로운 구름이 있는 곳에서 불상 등을 발견하고 그 불상을 모실 당우를 세운' 것이 사찰의 연기인 경우가 많다.

막상 노숙을 한 다음날, 그것도 순례지인 사찰에서 노숙을 했는데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불리는 무지개 구름을 친견하니 뭔가 알 수 없는 고양감이 든다. 이 앞으로도 힘내서 순례하라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불보살들의 격려를 받는 느낌이다.

시코쿠의 사찰들은 오전 7시부터 사무(寺務)가 시작된다. 납경을 받자 말자 출발할 생각으로 먼저 참배하기로 한다. 아침에 본 길조에 기분이 좋아 모두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예불을 올린다. 본당과 대사당에 예를 올리고 겸사겸사 본당과 나란히 서있는 신사로 가본다. 작은 사당들은 모두 문이 열려 있었고 작은 청동 거울들이 하나씩 모셔져 있었다.

신토(神道)에서는 보통 자연물을 신이 깃든 신체(神體)로 삼지만 이 외에 거울을 신체로 삼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신토의 최고신인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이 태양신인 점에서 거울이 비추는 태양과 그 반사되는 빛을 아마테라스의 모습으로 여겨 신체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 신사에 모셔진 거울들은 모두 뿌옇게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 거울은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방치된 것도 있었다. 얼핏 보아도 신사의 지붕이나 기둥 등에 이끼가 잔뜩 껴있거나 벌레 먹은 자국이 역력하여 전혀 관리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신불분리 이후로 사찰측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신앙의 상징과 대상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모습에 마음 한쪽이 착잡했다. 또 모셔진 신들도 일본불교에선 불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쿠마노(熊野) 신사의 신들이라 더욱 그랬다.

아침 첫 납경을 받기 위해 납경소로 향했다. 납경소의 직원 분은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납경을 써줄 준비를 모두 하고 앉아 계셨다.

"방금의 힘찬 예불은 여러분이었군요!"

"앗, 예불소리가 들리셨나요?"

"네, 작긴 해도 들렸답니다. 여기까지 들릴 정도니 꽤나 힘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침 7시 30분이 되어서야 메이세키지를 나선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부지런한 순례자들이 한둘 쯤 길에 보이기 마련인데 산사는 아직 적막 속에 잠겨있다. 어제 노숙한 자리 근처를 지나며 다시 괜히 하늘을 한번 본다. 새벽녘의 무지개 구름은 온데간데없이 흩어지고 아침볕에 붉은 구름만이 옅게 퍼져있었다.

다음 사찰인 다이호지(大宝寺)까지는 약 70km. 다이호지가 있는 쿠마(久万)고원을 넘어가면 에히메의 중심인 마츠야마(松山). 마츠야마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찰소들이 평지에 있고, 또 거리들도 가까운 편이라 하루에 진도가 금방 나아간다.

오늘의 목표는 25km 가량 떨어진 토요가하시(十夜ヶ橋). 이 곳도 시코쿠 순례의 전통과 관련된 설화가 전하는 사찰로 순례자들을 위한 츠야도(通夜堂)이 마련되어 있다. 25km면 그리 힘든 거리도 아니고, 또 길도 56번 국도를 따라 걷는 길이니 그리 힘든 길은 아니다.

하지만 어제 아무 것도 없는 노지에서 노숙해서 일까? 몸이 생각만큼 움직여 주질 않았다. 여기저기서 뻐근한 몸이 비명을 지른다. 결국 함께 걷는 홋카이도 팀의 걸음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도중에 갈라지자고 했다.

"그래, 박상 어제 완전 길바닥에서 잤잖아. 우리도 오늘 토요가하시까지니까 느긋하게 따라 오라구!"

홋카이도 팀이 먼저 떠나가고 오래간만에 나 홀로 순례자로 돌아왔다. 혼자가 되니 다시금 보이는 소리와 풍경들이 있다. 지팡이가 길을 끄는 소리와 그림자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조용한 길 위에 펼쳐졌다. 계속해서 즐겁게 떠들던 입이 오래간만에 닫히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

풍찬노숙이 몸에 익은 순례길이지만, 그래도 몸에 쌓이는 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지팡이에 의지해 한발 한발 나아간다. '대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하나' 하는 물음을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꼭 되뇌고 만다. 그럼에도 힘을 내어 걷는 것은 이 고행 끝에 만날 새로운 나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느 스님께서 우리는 불단의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만을 봐와서 6년간 피골이 상접하게 수행하신 부처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또 그 전에 수겁 동안의 생에 걸쳐 수행과 공덕을 쌓아 오신 부처님은 알지 못한다고. 스님의 방에는 파키스탄 박물관에서 찍으신 것이라며 그 유명한 고행상 사진이 걸려있었다.

인도의 힌두 수행자들 중에도 몸의 고통이 강할수록 전생과 이생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거친 음식과 잠자리만을 고집하고, 심지언 몸을 채찍질하며 걷기도 한다. 옛 중세의 가톨릭 신자들도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고, 죄인인 자신을 벌한다는 뜻에서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뾰족한 징이 안에 박힌 신발 등을 신고 순례를 나섰다고도 한다.

시코쿠 순례길도 역시 자신이 나서서 하는 고행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88곳의 사찰을 찾아 동가식서가숙하는 고난의 길이다. 과연 이러한 고행으로 나의 업장은 얼마나 소멸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내 마음과 입에서 불평보단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나 보다. 머리로는 잘 몰라도 몸은 무엇인가 배워나가고 있음을 안다.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걸어가다 조금 졸려서 잠깐 길가네 앉는데 따스한 볕이 기분 좋아 금세 까무룩 잠이 든다. 그렇게 한잠을 좀 자니 발에 힘이 돌아왔다. 시코쿠의 사찰들이 업무를 마치는 오후 5시 전까지 토요가하시에 도착해야하니 조금 힘을 주어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도 길이 평탄하게 잘 닦여 있어 그리 힘들지 않았고 어느새 저 멀리 홋카이도 팀도 보였다.

다시 세 사람이 모여 지도를 확인해 보니 코앞이 토요가하시였다, 시간도 적당히 오후 4시쯤에 도착할 듯 했다.

"박상, 혼자 걷는 길은 어땠어? 안 외로웠어?"

"어휴, 외롭긴요! 코보 대사님이 함께 걸어 주셨는데요!"

시코쿠 순례길은 코보 대사가 항상 순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동행이인(同行二人)' 의 길. 나 홀로 걷더라도 외롭지 않은 배움의 길이다.

〈자유기고가〉



43번 사찰 메이세키지 전경. 시코쿠 순례 사찰의 연기 설화는 코보 대사가 상서로운 구름을 보고 사찰을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많다.

풍찬노숙으로 몰려오는 피로에
잠시 혼자서 걷게 된 순례길
자청한 고행… 불평보단 감사해
길의 끝에선 새로운 나를 만날까



풍찬노숙 후 만난 보인 무지개 구름.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5~10/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6	당신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대봉선사 법어집)	편집부	무상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순례 세상을 꽃피우다(스님들과 함께하는 순례 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과학자인 나는 왜 영성을 말하는가	루퍼트 셸드레이크/이정엽	수류책방
4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9	붓다는 결가부좌를 하지 않았다	이영일	수련하는돌
5	삶이 내게 묻는 것들	보현스님	쌤앤파커스	10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마크 앱스타인/김성환	한문화

임종 앞둔 이들 치료 위한 명상 프로그램은…



죽음을 명상하다
조안 할리팩스 지음/이성동 김정숙 옮김
민족사 펴냄/1만 5500원



"Being with Dying: 죽음과 함께하는 삶" 프로젝트
이 순간, 가장 생생히 살기 위해 죽음을 명상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마이애미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 신학교 · 하버드 의과대학 · 조지타운 의과대학 및 여러 학술기관서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해 가르침을 준 불교도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조안 할리팩스가 약 50년 동안 임종의 현장에서 일하며 터득한 죽음에 관한 명상의 정수가 담긴 책 〈죽음을 명상하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임종에 직면한 사람과 접촉한 저자의 오랜 경험, 전문 돌봄 집단과 임종자의 가족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죽음 앞에 용기로 마주한 사람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는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고, 각 장의 끝에 누구나 따라해 볼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제시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벽한 우리의 삶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고마운 책이다.

어린 딸을 잃은 슬픔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웁비리라는 여인에게 붓다는 이렇게 설했다. "웁비리여. '지바'라는 이름을 가진 8만 4천의 딸들이 장례의 불에 불타고 있다. 당신은 어느 딸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가?"

붓다는 웁비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잊고 딸을 놓아주라고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 대신 웁비리의 개인적 비탄이 고통을 겪는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보편적 연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 준다. 이 책의 저자 조안 할리팩스는 붓다의 이런 가르침에 주목한다. 개인적 상실의 고통은 어떻게 보편적 연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책을 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소중한 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이 인생이라는 동전의 양면인 삶과 죽음의 경험에서 회한과 비통함뿐만 아니라 궁극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 '안락사'의 문제, 즉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그런 논의의 결과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존엄사법'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 의료 시스템에 모든 걸 내맡겨 버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도 많아졌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할 때다.

죽음.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는 시한부 선고,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런 죽음, 끔찍한 사고, 자살……. 우리에게 죽음은 늘 괴로움과 동일시된다. 또 죽음을 삶의 패배, 극복해야 할 질병, 물리쳐야 할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음이라는 생생한 진실을 부인하고, 죽음이 주는 성찰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절대 죽을 리가 없다고 느끼고 행동한다. 대부분이 자신의 죽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도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조안 할리팩스는 불교도, 의료인류학자로서 약 50년간 임종의 현장에서 일하며 죽음과 삶의 문제를 화두로 삼으며 수행해 왔다. 그녀는 죽음과 삶을 분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죽음과 함께하는 삶(Being with Dying)'의 가치를 되새긴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반드시 괴로움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통과의례이고, 인생의 완성이며, 심지어 궁극적인 해방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보자고 제안한다. 죽음 없는 삶은 없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죽는다. 또 죽음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한 호흡 속에, 매순간 생성 소멸하는 세포의 삶 속에 현현한다.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죽음을 연습하라"고 했고, 중세 유럽의 기독교 수도승들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잊지 말라)"를 가슴에 새겼다. 불교 경전에서는 "모든 명상 중에서 최고의 것은 죽음 명상이다"라고 했고, 무상과 무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거의 50년 전, 저자가 말기 치료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가 목격한 미국식 '좋은 죽음'이란 그저 소독과 약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가 구비된 병원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제도화된 죽음'일 뿐이었다. 저자는 이런 제도화된 죽음에서 결여된 것이 바로 연민과 지혜라고 보았다.

그리고 연민과 지혜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명상 수행을 제안한다.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서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 고독, 수치심과 죄책감을 덜어내는 일이다. "제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종에 직면한 본인이 주변화되는 것, 그리고 임종자가 체험하는 두려움과 고독, 또 죽음의 파도가 삶을 덮칠 때 의사와 간호사, 임종자와 가족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임종 과정서 소외되고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자, 그리고 임종자를 죽음이라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지 못했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의료진과 임종자의 가족. 이 책에서는 죽음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지침과 실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임종에 직면한 사람과 접촉한 저자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책의 내용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생생하다.

명상 수행은 특별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곤하고, 화나고, 무섭고, 슬프고, 또한 단순한 저항감과 하고 싶지 않은 기분 등 이 모든 것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다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뿐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임종, 사망, 돌봄, 애도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토대라고 저자는 말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명상 수행이다. 무상의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명상, 다른 말로 삶에 대한 명상이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완벽한 이 순간을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죽음을 명상하는 세 가지 지침

이 책에서는 죽음을 명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지침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not-knowing)을 알기" "가만히 지켜보기(bearing witness)" "연민에 가득 찬 행동(compassionate action)"을 제시한다. 이 세가지 실천적 지침들은 임종에 직면한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탄에 잠겨 있는 사람,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관계자들과 함께한 저자의 50년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임종의 순간을 같이 할 때 저자의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서, 이 세 가지 지침이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①'알지 못한다는 것(not-knowing)'을 알기

"임종과 함께하는 여행"의 시작 단계에 필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선고 받고, 전쟁이나 총기 사고 등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 죽음은 기존의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 '지도에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단계에서는 '죽음은 어떻게 느껴질까? 괴로운 것일까? 혼자가 되는 것일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없어지면, 나를 그리워할까? 죽음은 고통스러운 걸까? 죽은 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등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질문들이 싹을 틔운다.

②'가만히 지켜보기(bearing witness)'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문턱을 넘어설 때의 지침이다.

이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이 단계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것과 함께 하고, 죽음의 과정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과정을 받아들인다. 자신을 현실에 맡기고, 죽음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잘 죽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를 넘어서는 힘을 얻는다.

③'연민에 가득 찬 행동(compassionate action)'

임종의 세 번째 단계이자 최종 단계는 죽음과 직접 맞닥뜨리는 경험이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과 그 사람을 보살피고 떠나보낸 후 애도의 과정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이는 치유 경험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는 심신 모두의 걱정거리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음으로써 치유를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은 상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짐으로써 치유를 경험한다.

구마라집 역 금강경의 온전한 이해!

금강경 요해



각 분마다 그 대의와 맥락을 설명하고,
원문 문장 및 개념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풀이하며,
각 분의 마무리에서는 선적 일화를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과거칠불 및 삼십삼조사의 게송과 독송용 금강경 수록!

백납 노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달마가 동쪽으로 간~’ 한국영화 백년사 10選에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10월 3~12일 영화의 전당 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나라 불교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두 편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981년 작 ‘만다라(감독 임권택)’와 1989년 작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감독 배용균, 이하 달마가)’을 상영된다.

‘만다라’는 ‘한국영화 회고전-정일성 감독전’에 선정됐으며, ‘달마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10편을 선정한 ‘특별기획1-한국영화 100년사의 위대한 정전 10선’에 선정됐다.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이 만든 ‘만다라’는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협업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정일성 감독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언제나 ‘만다라’를 첫 번째 작품으로 놓는다. 두 거장이 빚어낸 작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했지만 ‘만다라’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점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영화 세계가 지닌 위대함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가의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번뇌와 만행의 길을 담담하게 스크린에 옮긴 영화 ‘만다라’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깨달음에 이르려는 법운 스님(안성기)과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무애한 해탈의 길을 구하는 지산 스님(전무송)의 구법의 길을 그린 영화다.


‘특별기획1-한국영화 100년사의 위대한 정전 10선’에 선정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한국영화 회고전-정일성 감독전’에 선정된 ‘만다라’.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특별상영
부탄, 태국 등 불교권 국가 영화 다수 출품

영화 만다라는 개봉 당시 대종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지산 스님 역의 전무송은 남우조연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영화는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해 한국의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는 스토리 중심의 플롯대신 회화적인 영상과 상징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한 영화로, 한국영화 역사상 전대미문의 시도이자 예외적 미학의 성취로 회자된다. 영화 ‘달마가’는 1989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황금표범상)을 수상한다. 역시 우리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큰 계기였다.

경북 안동 영산암에서 촬영한 ‘달마가’는 기봉 스님의 구도자적 번뇌와 간절한 수행을 독창적인 철학과 미학으로 담아내고 있다. 깊은 산사에 노장 혜곡 스님과 동자승 해진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젊은 기봉 스님이 찾아온다. 기봉 스님은 혜곡 스님과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이어가지만 여전히 세연 속에 두고 온 욕망과 미련의 번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혜곡 스님과 기봉 스님의 설법과 독백은 영화의 백미다. 영화 ‘달마가’의 이번 상영은 배용균 감독의 오랜 칩거로 인해 어렵게 성사되었다고 한다.

불자들에겐 영화이기 이전에 법문으로 다가오는 두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은 불자들에게 더 없는 호사라고 할 수 있다.

85개국에서 299편의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에는 네팔, 부탄, 티베트 등 불교권 국가들의 영화가 다수 출품됐다.

태국 영화로는 태국 불교사원의 비리를 추적하는 ‘컴 앤 씨(감독 · 노타폰 분프라콥)’와 태국 유소년 축구팀의 동굴 조난을 다룬 ‘동굴’이 있다.

티베트 출신 감독 페마 체덴 감독의 신작 ‘풍선’도 소개된다. 이번 신작 역시 전작인 ‘타를로’와 ‘진파’에서 보여준 티베트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다루지만 전작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의 영화도 볼 수 있다. 파우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교실 안의 야크’다 해발 4,800미터에 56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루나나에는 작고, 초라한 학교가 있다. 수도 팀부에서 나고 자란 도시 남자 우겐 선생의 꿈과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는 인간의 꿈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두 교황’, ‘모성’ 등 여러 종교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도 다수 볼 수 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일반 상영작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와 부산은행에서 예매할 수 있다. 1666-9177.

‘3.1’ 100주년에 보는 용성 스님 발자취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용성문화제’

용성 스님의 3가지 교화지침인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를 목표로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려온 용성문화제가 올해는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다. 서울 대성사는 10월 5일 경내에서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용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용성 스님 한글경전.

미술제와 음악제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용성 스님 展 △청소년 그림축제 △용성산사음악회 △부대프로그램(차 시연, 미술전시,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3.1 만세운동 당시 만해 스님과 함께 33인 민족대표 중 불교대표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용성 스님의 행적과 역사를 고증하는 ‘용성 스님 展’에서는 3 · 1만세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용성 스님의 수형카드와 용성 스님의 한글경전 및 서적 30여 점 등 용성 스님과 관련된 사진과 책 등이 전시된다. 중복되는 서적 일부는 일반 공개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했다.

△미술제에서는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에 황규철(회화)과 서칠교(조각)를 선정했고, 청년작가상에 황두현 작가와 공로상에 이인자 교수를 선정했다.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은 용성 스님의 세 가지 교화지침 중 ‘불교의 지성화’를 되새기는 것으로 청년불교미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다.

10월 5일 서울 대성사 경내
용성 스님 展, 그림축제 등
수형카드, 한글경전 등 전시

청소년 그림축제도 열린다. 용성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업적이 크다. 그 뜻을 잇는 청소년 그림축제는 3.1 독립선언과 용성문화제를 주제로 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4시간 동안 열린다.

국회의장상, 국회부의장상, 문화체육부장관상, 총무원장상, 교육원장상, 포교원장상,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초, 중), 서초구청장상, 대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음악제에서는 ‘용성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불교대중화에 앞장섰던 용성 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작곡하며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섰다. 기존의 용성문화제에서 선보였던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를 시작으로 대중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찬불가와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부대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전통차 시연과 미술제 수상작 전시, 예술체험 등이 열린다. (02)9475-9550. 박재완 기자

붓길과 마음길은 하나

김양수 개인전 ‘에움길 끝에서’
대구 봄갤러리 10월 9~15일

대중의 마음에 평온과 고요를 찾아주는 선화와 선시로 한국화의 새로운 화풍을 열고 있는 김양수 화백이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봄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에움길 끝에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에움길’이다. ‘길’을 주제로 한 새로운 방향성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텅 빈듯하지만 꽉 차있고, 꽉 차 있는듯하지만 텅 빈 그림과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선시 3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신작들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깊은 먹을 덜어내고 청색을 중심으로 한 청량감 있고 가벼운 느낌의 그림들이다.

“가을을 몰고 온 고추잠자리의 날갯짓 / 부산한 텃밭의 허공을 우러르고 / 푸른 하늘 맑은 여백 위로 흐르는 / 새털구름 가는 길은 어디일까 // 하늘길 / 물길 / 바람길 / 인생길 / 그 어느 길도 어찌할 수 없는 길에서 수많은 애환이 녹아내린 인연을 / 가슴에 매만지며 길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준비했다”

우리는 길 위를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연을 만들어 가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길 위에서 시작되어 길 위에서 끝난다. 그림 속의 물길 바람길 인생길은 수많은 사연이고 수많은 인생이다. 김양수 화백은 그 길을 에움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길이 김 화백에게는 붓이 가는 길이며 마음이 가는 길이다. 그리고 화가에겐 그 길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김양수의 그림이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중국 중앙미술학교 벽화과에서 수학하고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에서 30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시화집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고요를 본다〉, 〈새벽 별들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 등을 출간했다. 053-622-8456. 박재완 기자





“대행 선사 계행, ‘자비’ 중심한 이타행”

대행선硏, 21일 ‘대행 선사 계행 · 교화행’ 계절발표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계행(戒行)은 “자비심을 기반한 이타행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불살생계의 실천 의의- 대행의 계행과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대행 선사가 보여준 계행을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분석 · 조명했다.

먼저, 이자랑 교수는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 · 불망어 · 불음주’ 로 대표되는 오계는 ‘금지’ 가 아닌 ‘자발적인 윤리 규범’ 에 가깝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빠알리 경전의 오계는 ‘생물을 죽이는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수지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겠다’ 는 의미가 있다. “계(戒)란 윤리나 도덕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오계 중 제1조인 ‘불살생계’ 의 경우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계”라고 설명한 이자랑 교수는 “ ‘다른 생류(生類)에 대한 자비심의 배양’ 이 불살생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자비심은 일체 생류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보호해 주는 마음으로서 불살생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마음요전〉 등을 중심으로 대행 선사의 행적을 살핀 이자랑 교수는 “선사가 홀로 산과 들을 다니며 수행한 경험들이 수행자로 필요한 심신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됐고, 이를 계율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고 분석하며 “이 중심에는 ‘생류에 대한 자비심’ 이 있다. 선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류의 행복이었고, 자비심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계율의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도 대행 선사의 계행의 특징으로 이자랑 교수는 꼽았다. 실제 대행 선사는 법문에서 ‘계율’ 을 언급하는 등 계율의 실천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지만, 특정 조문을 강조하거나 얽매이지 않았다.



이자랑 교수



황상준 교수

이자랑 교수, 선사 계행 조명해
戒, 악행 멀리하는 자발적 약속
생명존중 사상 기반한 불살생계
자비심, 대행 계행 주요한 특징
얽매임보다 “한마음 행하라” 강조

이에 이자랑 교수는 “대행 선사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 터득한 것을 계율로 생각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계행의 의미를 찾는다”고 분석하며 “자신을 계율이라는 틀 안에 가두기보다 내면에 잠재하는 계율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할 것을 선사는 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행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행 선사는 ‘마음’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음요전〉에서 대행 선사는 “250계다 3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자랑 교수는 “대행 선사는 계율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오로지 행동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마음, 특히 ‘주인공’ 이라 부르는 자신의 내면을 중시한다”면서 “계율의 실천에 있어 우리의 행위나 말들이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만 한 견해”라고 밝혔다.

‘프레임 바꾸기’ 대행선사 교화 핵심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 을 통해 생애 기록 비교와 출 · 재가 교화법문을 분석했다.

황상준 교수는 〈한마음요전〉과 대행 선사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BTN불교TV 추모 다큐멘터리 〈한마음의 길〉에 나타난 대행 선사의 행장을 비교했다. 특히 일원상 전법시대의 대행 선사 법문은 초기 가르침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선사의 초기 교화를 접한 신도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해 연구를 진행할 것을 한마음선원에 제안했다.

또한 행장과 법문의 비교를 통해 승가와 재가에 대한 대행 선사의 교화행을 분석했다. 황상준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승가(제자)에 대해 ‘화합’ 과 ‘자비보살행의 실천’ 을 주로 법문했다. 재가에 대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프레임 바꾸기’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황상준 교수는 “대행 선사의 ‘되돌려 긍정하라’ 의 관점은 ‘생각의 전환’ 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체험 속에서 행해진 생활법문을 통해 전도에 사로잡힌 신도들을 일깨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발표되는 연구논문들이 대행 선사의 수행과 사상을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했다.

혜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되는 전문학자들의 논문들이 대행 선사의 선풍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됐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인연이 가을 단풍처럼이 익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일 원장에 취임한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불사는 원력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믿고 정성을 기울여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원 스님과 신도들의 후원과 격려 바란다”고 밝혔다.

美박물관 소장 ‘고려불화’ 웹서 만난다

문화재청 ‘고려불화 웹’ 구축
프리어 · 새클러博 등 8곳 소장
고려불화 16점 상세 정보 확인

미국 박물관의 소장된 고려불화 16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 · 운영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미국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관장 체이스 로빈슨)은 미국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려불화 웹사이트 ‘고려불화 자세히 보기(Goryeo Buddhist Painting: A Closer Look)’ 를 구축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9월 21일 동시 공개했다.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은 보스턴미술관 · 부르클린미술관 등 미국 8개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16점을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 정밀 조사와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 전문가 도판해설과 심포지엄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총 7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고려불화 종합정보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했다.



클리어 · 새클러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작품 · 인물 · 논고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문양사전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작품’ 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의 고려불화 16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논고’ 에서는 박지선 교수(용인대), 정은우 교수(동아대), 키슨 윌슨 학예사(프리어 · 새클러 미술관) 등 전문학자들의 해설논문을 만날 수 있다. ‘문양사전’ 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불화와 구별되는 고려불화만의 고유한 문양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고려불화 웹사이트 구축에는 정우택 동국대 前 교수(동국대)와 키스 윌슨 학예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7년 가량의 긴 시간 동안 고해상도 사진 촬영, 도판 해설 · 번역, 소장경위 조사, 웹사이트 수정 · 보완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했다.

정우택 前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미국 국립박물관이 고려불화를 위한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점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국내 행정기관이 외국박물관 지원 사업을 통해 거둔 최고의 성과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특정 주제의 문화재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다. 누구나 고려불화의 예술적 · 문화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체이스 로빈슨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장은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박물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웹사이트는 한국의 진귀한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고려불화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과 제작기법, 재료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불번형 위패’”

이경희 연구원, 범어사 박물관 학술대회서 주장

효명세자 부부 명복위해 제작
왕실자수 · 기법 확인되는 유물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가 ‘불번형 위패(佛幡形 位牌)’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문조익황제와 신정 익황후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 담긴 궁중자수’ 로 왕실자수의 형태 및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로 알려져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9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보존처리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 이경희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사후에 추승 된 왕인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와 효명세자 세자빈인 신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유물”이라고 설명하며 “장엄수의 형태는 불보살의 위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불번(佛幡)과 형태가 유사해 불교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황실축원 장엄수는 불번형 위패로 20세기 초 조선 왕실의 만장 형식이 포함된 자수이자 왕실의 정치사를 반영하는 유물인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조선 왕실의 자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인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발표에서 “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불교 번의 형태적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며 “크기 면에서 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으나 유소(매듭을 맺고 끝에 술을 드리운 장식)의 색과 구성이나 매듭 엮음의 구조는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영미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의 재질분석과 보존처리 및 복제 과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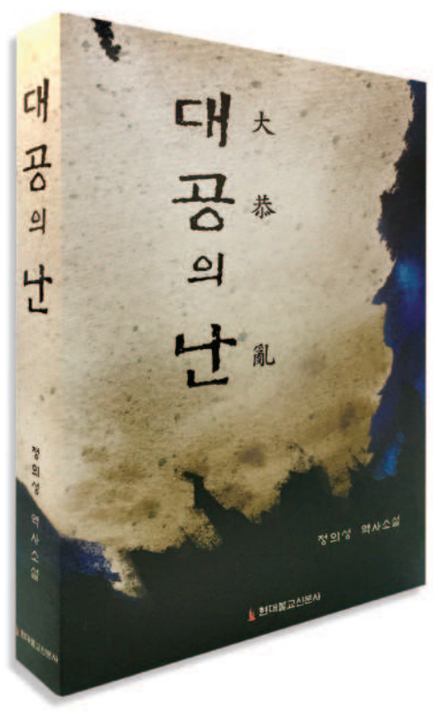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박재완의 PhotoEssay



나한전에서

나와 닮은 얼굴 하나쯤 있다고 해서
그 얼굴 하나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분명하던지
그 눈과 눈 사이를 겨우겨우 걸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깊고 깊던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나는 힘들었다
나와 닮은 얼굴 하나, 어림도 없었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㊶ 배명인 前 법무부장관

이 시대 유마거사…사형수 최재만 양자 삼아

사형수 포교를 하면서 은혜도 입고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고 싶은 이가 있다. 바로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이다. 어찌보면 잊을 수 없는 내 인연중 첫 번째로 소개해야 마땅하나, 본인의 공적을 언론에 드러내길 꺼려하는 강직한 성품을 아는지라 여러번 망설였다. 하지만 역대 법무부장관중 교정행정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배려가 많던 분인 만큼, 내 사형수 포교의 큰 인연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기에 늦게나마 소개한다.

BBS불교방송이사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를 지낸 배 장관은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82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1986년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에 참여했으며,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지낸 거물이다.

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교정 행정에 관심이 많았다. 1983년 교정대상도 제정하고 교도관들의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독실한 불자로 중생심과 자비심이 많아 어려운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도움도 주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법무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배 장관은 재임중 내가 사형수 포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 직원에게 삼중 스님의 공적을 조사해서 포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내가 받은 상중 최초의 상이었다. 나에게는 과분했다. 배 장관의 추천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은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직중에는 그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초여름, 그가 퇴임한 후 배장관의 집에서였다.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몇 분 얘기해보니 나는 그가 상이 없고 아주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형수 최재만의 구명 운동에 대한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후 2시간 동안 최재만을 살려야 된다고 집요하게 몰아 부쳤다.

최재만 사형수 구명 운동으로 처음 인연
법무부장관 당시 1983년 교정대상 제정
겸손과 강직한 성품에 자비심 많은 불자

그리고 나는 최재만이 건네준 염주알도 보여주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금강경〉이었다. 그리고 염주알 하나에는 '나는 억울하다'고 새겨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必歸家(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글씨가 새겨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삼중 스님, 최재만 부부,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순.

그것을 본 배 장관은 놀랐다. 어떻게 사형수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배 장관에게 나는 최재만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과 피맺힌 하소연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구명을 호소했다. 모두 듣고 난 배 장관은 "나는 사형 존치론자이지만, 자칫하면 내가 재임시에 아까운 생명 하나를 빼앗아버릴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구명 운동에 관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배 장관과 나는 서옹 큰 스님, 당시 정해창 장관 등과 합심해 최재만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구명하는 데 성공했다.

배 장관이 최재만을 처음 만나면서 한 명법문은 지금도 내 기억속에 또렷이 자리잡고 있다.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중국의 어느 왕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왕사가 급히 뵙기를 청했다. 빨리 바둑을 끝내기 위해 왕은 "죽여 죽여"라고 외쳤다. 바둑서 자기 집을 죽이라는 말이었는데, 잘못 이해한 신하는 기다리던 왕사를 죽여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왕사께서 혹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냐고 묻자, 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십생전에 왕께서는 지렁이셨는데 땔나무꾼인 왕사의 낫에 걸려 토막이 나 죽었다고 했다. 십생전 내가 무심히 죽인 그 업보로 금생에 이렇게 무심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왕에게 다음 생에는 빚없이 만나자고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그 일화를 들려준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네가 지금 고문 받고 사형수로 있는 것도 모두 전생의 업보이니 그냥 있는 현실을 받아 들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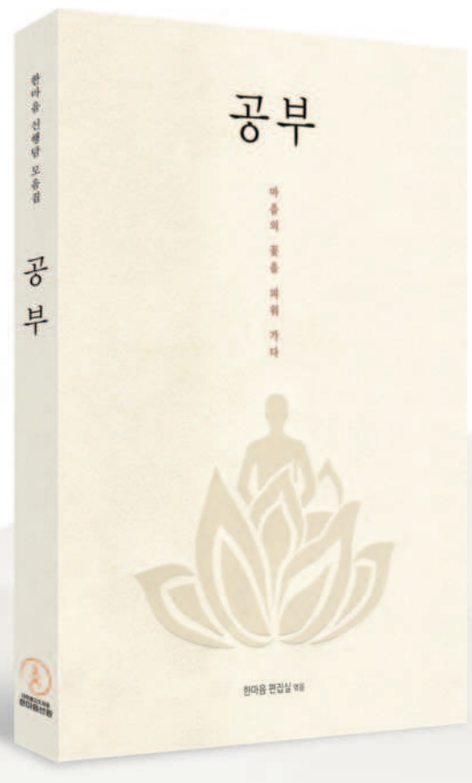
배 장관은 또한 최재만 사형수의 이야기를 다룬 MBC 수사반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방송 당시 담당 PD의 끈질긴 설득에도 한사코 거절했다. 배 장관은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고사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하자 대역만은 써도 좋다고 허락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인간의 참회가 가장 아름답다' 는 배 장관이 내 책의 추천사에 쓴 글귀는 지금 읽어도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부처도 물들면 중생이 되고, 중생도 깨치면 부처가 되는 법, 생사가 일여(一如)이므로,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는 분명 내가 만난 이시대의 유마거사 이다.

정리=김주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